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우 태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지도교수 원효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우 태

# 이우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2월



주심 교육학박사 장 한 기 (인)

위원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원 교육학박사 원 효 현 (인)

#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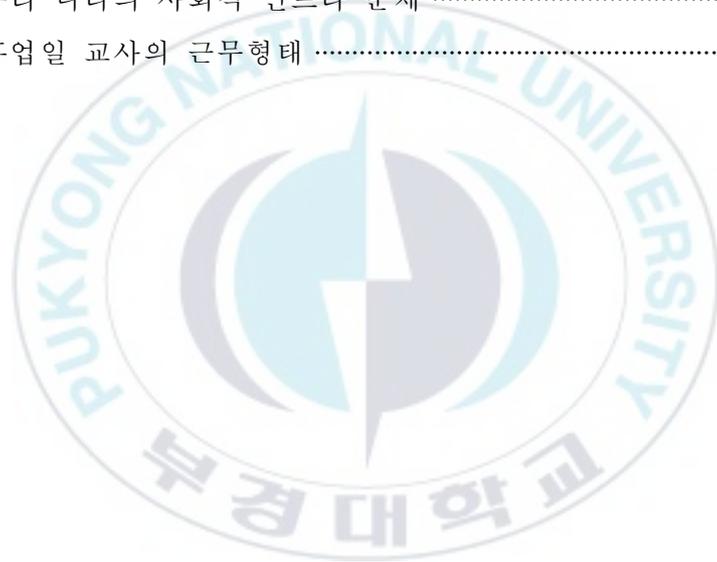
## Abstract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3. 용어의 정의 .....	4
가. 「주 5일 수업제」 .....	4
나. 「사회적 인프라」 .....	4
4. 연구의 제한점 .....	5
<b>II. 이론적 배경</b> .....	<b>6</b>
1. 「주 5일 수업제」의 개념 .....	6
2. 「주 5일 수업제」 도입배경 .....	8
3. 외국의 「주 5일 수업제」의 사례 .....	14
4. 국내의 「주 5일 수업제」의 사례 .....	26
5. 「주 5일 수업제」의 단계적 모형 .....	27
6. 제7차 교육과정 편제와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논의 .....	29
<b>III. 연구 방법</b> .....	<b>32</b>
1. 연구 대상 .....	32
2. 측정 도구 .....	33
3. 자료 분석 .....	34
<b>IV. 연구 결과</b> .....	<b>35</b>
1.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와 문제점 .....	35
2.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과정 운영 .....	46
3.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	66
<b>V. 요약 및 결론</b> .....	<b>76</b>
1. 요약 .....	76
2. 결론 .....	82
참고문헌 .....	84
부록 .....	87

## 표 차 례

<Ⅱ-1> 국내의 「주 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 내용 분석 .....	26
<Ⅱ-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 .....	31
<Ⅲ-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32
<Ⅲ-2> 조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	32
<Ⅲ-3> 설문조사 문항 구성 .....	33
<Ⅳ-1>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인식 .....	35
<Ⅳ-2>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견해 .....	37
<Ⅳ-3>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이유 .....	38
<Ⅳ-4>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이유 .....	39
<Ⅳ-5>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 .....	40
<Ⅳ-6> 학습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 .....	41
<Ⅳ-7> 학습 효과가 적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42
<Ⅳ-8> 「주 5일 수업제」의 교육적 역할 .....	43
<Ⅳ-9> 「주 5일 수업제」 문제점 해결방안 .....	45
<Ⅳ-10> 현행 교육과정의 「주 5일 수업제」 적합성 .....	46
<Ⅳ-11>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	47
<Ⅳ-12>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시 우선적 고려사항 .....	49
<Ⅳ-13> 「주 5일 수업제」 시행전의 정책과제 .....	51
<Ⅳ-14> 토요일·휴업일 활용방안 .....	52
<Ⅳ-15> 학교 교육체제의 장애요소 .....	54
<Ⅳ-16> 법정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의견 .....	56
<Ⅳ-17> 수업일수 재조정시 줄여야 할 교육활동 .....	57
<Ⅳ-18> 적절한 연간 수업일수 .....	58
<Ⅳ-19> 연간 수업량의 수준 .....	60

<IV-20> 교육 내용 영역의 개선점 .....	61
<IV-21> 교육 내적인 조건 .....	62
<IV-22> 대체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	64
<IV-23> 휴업일로 적당한 요일 .....	65
<IV-24> 현 시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정도 .....	67
<IV-25>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문제 .....	68
<IV-26>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	70
<IV-27> 현 상태의 사회적 인프라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	71
<IV-28> 우리 나라의 사회적 인프라 문제 .....	73
<IV-29> 휴업일 교사의 근무형태 .....	74



# **Teachers' perception of 5 School days a week System of Elementary School**

Lee Woo Ta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1. Purpose and Subje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awareness of the 「5 School Days a Week」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by examining it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suggesting settling plans for them after visiting the fields examining and understanding errors occurring in its implementation. To achieve such purpo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suggested.

First, how do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effects and problems of 「5 School Days a Week」 ?

Second, how do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operation of curriculum of 「5 School Days a Week」 ?

Third, how do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 of 「5 School Days a Week」 ?

### ***2. Study Method and Content***

For this study the author gave questionnaires to 300 elementary teachers who are working at 25 public Elementary School belong to Pusan Education office. Of the 300 questionnaires distributed, 276 are returned. The rate of return is 92 percent, and the rate of practical use is 82.7 percent. The writer analyzed the opinions of teachers about 「5 School Days a Week」 using the  $\chi^2$  verification.

### **3. Conclus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eachers agreed to the 「5 School Days a Week」, and they all realized that participation in cultural events, school trips, travel, and activity time with family are useful character education of students. Also, effects of 「5 School Days a Week」 influenced the extension of self-leading study. Few teachers are worried about the lack of experiential activity of children with a dual-income family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 and programs. Also, present 7th curriculum is overall inappropriate for carrying out 「5 School Days a Week. Therefore, local education office and each school should discuss about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experiences. The revision of 7th curriculum or the amendment of new curriculum must be attained.

Secon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operating 「5 School Days a Week」 is curriculum. For this system, present curriculum has to be achieved curriculum reformation or amendment in national dimension because current courses are based on 6 School Days a Week. To manage 「5 School Days a Week」 in the 7th curriculum, school days a year should reduce and unnecessary school events should be reduced or changed into class unit events as well as field learning and remote learning should be related to curriculum, to secure the number of legally necessary school days.

Third, most of teachers have negative tendency toward establishment of present social infra, and the factors are related to equipment, program, operation, and human strength. The problems with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 in the national dimension are social environment, faculties, the diversity of programs, economical supports, the supplement of volunteers and experts, and lack of educational common recognition of parents. To solve these problems, a nation and corporate towns must change curriculum and expand educational finances.

「5 School Days a Week」 may be a motivation in educational reformation because it includes the problems of whole education. Therefore, to carry out 「5 School Days a Week, a nation and curriculum experts must minutely examine the considerate points and previous preparation items. Thorough these, we could gain reliance about public education from parents as well as knowledge and an active attitude of pupil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지식·정보 사회, 평생 학습 사회로 표현된다. 이는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를 의미하는 함축적 표현이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아동들은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능력의 배양은 교육의 몫이며,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과 통합적인 교육활동, 직접적인 체험활동, 주제중심의 다양한 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이런 자질과 능력은 아동이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논리적인 사고력, 상상력, 직관력 등의 새로운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중시하여야 하며, 또한 풍부한 감성이나 사회성을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어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 배우고, 지역사회에서 보고 모방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김현석, 2003, p.2). 학교 교육에서 얻는 자질이나 능력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놀이, 자연 체험, 사회 체험, 생활 체험 등을 통해 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고 아동의 유대를 깊게 하고 자주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게 하며 지역에서 스포츠나 놀이를 즐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주 5일제 수업은 이러한 사회 변화와 요구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는 선진국가에서는 일반화 된 제도로서 현재 5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01, 머리말). 일본의 경우, 1995년 9월부터 월 1회의 단계적 시행을 시작으로 2002년 4월 완전시행에 들어갔으며, 중국은 1995년 9월부터 전면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주 5일 수업제」를 넘어 「주 4일 수업제」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정광희 외, 2000, p.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단축안에 대한 합의에 의해 주 5일제 논의와 함께 「주 5일 수업제」도입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주 5일 수업제」실험학교 운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8월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주 5일 수업제」를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 5일 수업제」가 제기된 주요 이유는 주 5일 근무제라는 교육 외적인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외적 요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물론 주 5일 근무제라는 외적 요인이 「주 5일 수업제」의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주 5일 수업제」는 교육 내적인 요인에 의한 교육 내부로부터의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인 관점을 결여한 채 논의될 경우 실질적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정광희 외, 2000, p.1).

「주 5일 수업제」가 요청되게 된 교육 내적인 요인은 학교교육의 위기 의식 고조에 따른 새로운 학교 교육 운영에의 요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재구조화, 평생 학습 사회의 도래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시, 수업량의 감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유 등을 들 수 있다(권석광, 2002, p.34) 교육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은 주 5일 수업제와 매우

밀접하게 맞물릴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주 5일 수업제」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서부터 지식의 문제,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의 문제 등에 이르는 교육 전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 요구가 「주 5일 수업제」를 통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전개시켜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주 5일 수업제」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내지 사전 준비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교육과정의 개정과 운영의 문제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220일 법정 수업일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주 5일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감축승인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수업일수나 수업시수의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상의 내용 정선도 포함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토요일수업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프라 확대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 5일 수업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둘째,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셋째,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규명하는 계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해 교원의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초등학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주 5일 수업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초등학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주 5일 수업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초등학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가. 「주 5일 수업제」 정의

「주 5일 수업제」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하고 1일은 학생들의 경험의 장을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사회, 자연, 취미와 문화 생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기 생각에 따라 계획하고 생활 체험, 사회 체험, 자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다(손웅, 2001, pp.45-47).

### 나. 「사회적 인프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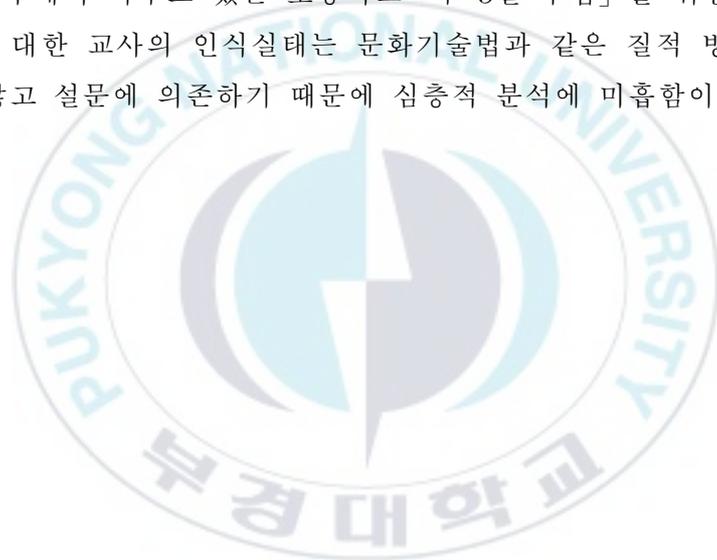
인프라는 영어의 Infrastructure의 준말 형태로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기간 토대 혹은 기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인프라」란 「주5일 수업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결 요소로서 여기에는 인적 차원, 물적·재정적 차원, 시설 차원, 행정·제도적 차원, 이념적 차원까지 통괄되는 개념으로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윤미 외, 2001)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 표집이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그 만큼의 제한이 따른다.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 배당, 편성 운영 지침, 연간 기준 식수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 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실태는 문화기술법과 같은 질적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설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심층적 분석에 미흡함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 5일 수업제」의 개념

「주 5일 수업제」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교과 수업을 하고 1일은 학생들의 경험의 장을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사회, 자연, 취미와 문화 생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기 생각에 따라 계획하고 생활 체험, 사회 체험, 자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다(손웅, 2001, pp.45-47).

「주 5일 수업제」란 말은 ‘학교 주5일제’ 뿐만 아니라, ‘학교 주휴2일제’, ‘가정2일제’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이도인, 1996, p.10).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일주일 중 5일간은 학교에 가고 2일은 휴교를 한다는 것인데 노동계의 경우에는 ‘노동 5일제’라고 말하지 않고 ‘주휴2일제’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학교의 경우 ‘주 5일 수업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있다(장이권, 2000, p.318).

주 5일간의 학교 운영을 표현하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경우, 문부성 문건이나 관련 자료에서는 ‘학교 주5일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서적이나 논의에서는 ‘학교 주 5일제’ 혹은 ‘학교 5일제’가 함께 병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주 5일제’ 혹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amenager le temps scolaire’, 즉, ‘학교시간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의 개념보다는 학습 효과와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학교 운영의 시간 조직에 대한 관점이 용어상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학교시간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총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시간을 조직한다는 행위 또는 개념인데, 그 안에는 학교의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 방과 후 학교시간, 방과 후 교내외 과외 활동 시간에 관한 고려까지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다른 국가들의 용어 사용과는 차별화 되고 있다(정광희 외, 2000, pp.11-12).

우리나라에서는 5일간의 학교 운영에 대한 표현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도인의 경우, 단행본의 제목에서 각각 ‘학교 주5일제’ ‘주 5일제 학교’ ‘학교5일제’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 사용상의 다소 혼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연구를 행한 서울교육대학의 연구 보고서(1999)에서는 ‘주 5일제 수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주 5일 수업제’ 라는 자료집에서 「주 5일 수업제」를 사용하고 있다(교육부, 2000). 최근 주5일 근무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일반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주 5일 수업제」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주 5일 수업제」라는 하는 표현이 몇 가지 점에서 오해와 혼란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정광희 외, 2000, p.14).

첫째, 「주 5일 수업제」에서 말하는 ‘수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가 분명치 않다. 이로 인해 이 제도가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 근로시간의 문제인지, 교육의 문제인지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 5일 수업제」라고 하면 수업을 주 5일간 한다는 것이 되겠으나, 그렇다면 나머지 2일간의 활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 새로운 학교 운영의 요구는 학교에서만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외 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수업’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 5일 수업제」는 현재 단위 학교별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토요 수업 운영 형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까지의 6일의 학교 수업을 5일로 변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를 「주 5일 수업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주5일제’를 주장한다.

‘학교 주5일제’나 ‘주 5일 수업제’는 함의하는 바가 다르지만, 함께 사용

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 학교 주5일제가 ‘완성된 5일제 학교운영’을 가정한다면, 「주 5일 수업제」 현재 실정과 보다 관련된 용어일 수 있다. 즉, 부분적으로 5일제 학교운영을 하는 경우 토요일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할 때 「주 5일 수업제」라는 용어가 현실적 범·행정적 범위 안에서는 보다 적용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 2. 「주 5일 수업제」의 도입 배경

### 가. 교육 외적 배경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교육의 내적 측면을 주로 한 것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정광희 외, 2000, p.16).

「주 5일 수업제」 논의 및 그 현실화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문제이다. 주 5일 근무제는 2000년 5월 17일 노사정 위원회 내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고, 2000년 10월 24일 주 5일제 근무가 확정되었다. 이 합의내용에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노동 시간의 감축(연 2,497시간에서 2,000시간 이내로)이외에도 휴일, 휴가 제도의 국제 기준 적용·확대, 교육 훈련 및 여가 시설 확충 등을 비롯하여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한겨레 신문 2000.10.24). 이 합의내용에 따라 2002년 5월 국가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는 은행 등 금융권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 8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1998년 경제 위기 이전에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시간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논의해 왔으나 소위 ‘IMF 시기’ 이후

에는 대량 실업의 극복과 고용 창출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차원에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본적 노동 권리 실현의 일부로서 사회적 민주화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 성장 일변도의 논리를 벗어나 국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장이권/홍미리 역, 2001, p.60).

이러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동 시간 단축은 학교와 가정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에서는 교직을 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종으로 분류할 것인가, 일반 노동직과 함께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교직 또한 하나의 직업으로서 주5일 근무제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화는 학생들의 수업 시수 및 수업 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정광희 외, 2000, p.19).

가정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학부모의 여가 시간이 증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여가 시간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날 것이다. 즉, 가족 단위의 여가 활용이나 체험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입해 나갈 여지가 높아지게 된다(정광희 외 2000, p.19).

이처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은 표면적으로 경제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기존의 노동, 여가 형태의 전반적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육 내적 배경

「주 5일 수업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 사회가 주 5일 근무제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한다는 관점만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임할 수는 없다. 학교 운영은 아동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아동의 학습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습 리듬과 생활 리듬을 중시하고, 그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 (1) 새로운 교육관의 등장과 새로운 학교 교육 운영에의 요구

오늘날 교육 과제 중 하나는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다양성을 지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육성하며 아동의 인성 형성 면에 생기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과 교육 부적응, 왕따, 학교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등교 거부 아동들의 증가로 이제까지의 학교 교육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정광희 외 2001, pp. 22-23).

또한,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들은 공교육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대중적 교육을 표방하며 교육 기회의 확대를 추구해 온 학교 교육이 실제로는 어느 누구의 요구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자유학교, 대안학교, 탈학교론 등의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부분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 내용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 및 개성의 중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이윤미 외 2001, pp.14-15).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재검토의 요구들 선상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학교 운영 형태가 「주 5일 수업제」이다. 이는 학교 교육의 현실 적합성과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들이 현재 또는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구교육대학교, 1996, p.155). 또한 보다 다원화되고 빠른 속도로 정보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는 학교 교육의 변화로도 모하는데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적 요구에 따라 1989년 4월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의욕과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을 중시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장이권/홍미리 역, 2001, p.18).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의 초·중등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암기식 단순 지식 교육과 획일적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교 공부 부담이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었음을 직시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 육성’을 새로운 학교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을 찾아 능동적·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이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2.9, p. 38).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은 학교 교육의 문제들에서 기인한다. 교과 교육 부적응아, 왕따, 청소년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등교 거부 학생들의 증가는 이제까지의 교과 학교 교육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위기 의식은 자유 학교, 대안 학교, 탈학교론 등의 대안적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운동은 이미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정광희 외, 2000, p.20).

첫째, 현재의 학교교육이 불신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부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근본적 개혁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내용적으로 아동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기저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지니는 교육력 자체의 문제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학생들의 자기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위기 현상은 새로운 교육관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로서 주 5일 수업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 (2) 학교 교육 편중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학교-가정-지역사회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

아이가 스스로의 목표를 지향해 생기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지 학교교육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교육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좀처럼 정착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학생의 교육이 완전한 것이기를 바라는 가정 층의 학교에 대한 강한 기대에서 비롯된다(이도인, 2000, p.29).

역사적으로 학교 교육은 그 공공성 개념을 통하여 기존에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교육적 역할을 국가, 사회로 대체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존속하면서 학교 교육은 '학력 사회'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제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어 왔고,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병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영화, 1992, pp.120-123). 이러한 사교육과 공교육의 병존현상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성장에 기여할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상호 무관하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학생의 학업 부담을 무계획적으로 가중시키는 경우 교육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만일 학교에서 각 교과마다 학생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행 평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 과제 외에도 방과 후 입시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문제 풀이에 매달려야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무리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파행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자 2001, p.17).

학교와 가정, 사회가 상호 보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런 영리를 위하여 비대해진 사교육열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가정, 국가, 사회적 교육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인 것이며, 이러한 대안으로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된 것이다(정광희, 2000, p.21).

그런데 「주 5일 수업제」수업은 학교 활동만이 아니라 학교 외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한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일 학습 등에 대해서 학교와 가정 사회의 공동적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의 경영방침과 교육목표에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받아들여 교육실

천에도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 5일 수업제」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자질·능력의 육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자질과 능력의 육성은 정해진 지식과 기능을 획일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교육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다. 학교 외의 공간에서 지역사회 등의 협조·지원을 통해서 풍부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다양한 연대와 참여의 장을 통해 학부모·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의식-우리 아이가 인질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경계감, 학교가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불신감, 교육은 위에서 전해주는 것이라는 전통적 의식사고, 교육을 타인에 위임하는 소비자 의식 등을 불식해 갈 필요가 있다.

### (3) '여유'에 대한 요구에의 대응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있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관계의 고정된 학교 생활만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풍부한 체험이나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육성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 5일 수업제」는 학교를 위해서나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바람직한 인간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유로운 생활을 확보해야 한다(문부성, 1994). 하지만 우리 나라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는 수업량을 감축함으로써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유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도 「주 5일 수업제」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늘린다는 면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주6일 동안 이어지는 현재의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주중 공통적으로 많은 업무와 학습량의 부담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휴업일이 연장된다는 것은 이러한 학생과 교사들의 삶에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휴업일의 연장은 단지 쉼다는 의미보다는 학교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재고하여 새로운 연구와 이를 통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정광희 외, 2001, p.25).

### 3. 외국의 「주 5일 수업제」 사례

현재 북미, 중남미, 구주, 대양주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주 5일제를 취하고 있다(교육부, 1995, p.40). 아직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로서는 외국의 「주 5일 수업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주 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가. 일본

일본의 「주 5일 수업제」는 1992년 2학기부터 도입되었다. 1989년에 문부성에 의해 설립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라는 긴 명칭의 회의의 제언에 근거를 두고 정식으로 그 같이 결정하게 되었다(이도인, 1994, p.16).

일본의 「주 5일 수업제」 문제가 국가 수준에서 최초 정식으로 취급된 것은 1986년부터였다. 1986년 임시교육심의회 제 2차 답신에 기초를 두고, 1987년에 전국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월 1회 정도의 「주 5일 수업제」를 실질적으로 연구하게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9년에 일본 문부성에서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 회의’의 제의를 받아들여 9개의 연구 학교와 68

개교의 협력 학교를 발족시켜 주 5일 수업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했다. 그 후 1992년 2학기부터는 월 2회(거의 격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5년도 4월부터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은 휴업일로 하는 「주 5일 수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고(한국교육신문 1996.9.6), 2002년 4월부터는 완전한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통하여 자연, 사회,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자율적 태도 및 미래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능력을 육성하고 비교적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강화시켜 주며, 교사들에게는 주2일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질, 능력, 태도를 갖추기 위한 자기 연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유한구 외, 1999, p.29).

일본이 「주 5일 수업제」의 완전실시를 결정하게 된 것은 1996년 7월에 제출된 중앙교육심의회의 제1차 답신 「21세기를 전망한 일본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에서이다. 그 답신에서는 지금부터의 학교교육의 기본을 「여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등 살아가는 능력(生きる力)을 육성하는 데 두고, 교육내용의 엄선, 심성교육이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의 추진, '통합적 학습의 시간'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주5일제 학교의 완전도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98년 7월, 「주 5일 수업제」 완전실시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기준 개정에 대해 답신하고, 동년 중에 새 학습지도요령이 결정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주 5일 수업제」 완전 실시의 취지를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간 비중을 높여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유로움」 속에서 학교·가정·지역 사회가 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사회 체험이나 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시켜,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풍부한 인간성, 능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건강이나 체력 등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

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완전실시에 따른 제반 조치 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충실한 체험활동 운영,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학교 만들기, 학급경영 및 학생 지도, 교원의 근무 시간, 교직원의 연수 등 학교가 해야 할 일과,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학생의 활동 편의 도모, 가정 교육의 역할, 체험활동의 충실, 학생 이용 시설 확보, 학생의 안전 보호, 지역 전체에서 학생을 위한 환경 조성,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정보 제공 장려, 관계 기관간의 협조 등 가정과 지역사회가 할 일에 대한 조치를 각 산하기관, 단체에 통지했다.

처음에 주 5일제 완전실시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는 여유로움 또는 여유 있는 교육, 풍부한 인간성 육성이 분위기의 주류를 이루어 그쪽으로 치우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시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의 완전시행에 이르게 되니까 학력저하, 기본시설이나 조건 미비, 공사립간의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문부성은 궤도수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문부성은 일본 사회 전체에 토요일무가 일반화되는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 5일 수업제」완전실시를 위해 15년의 세월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 소모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립학교의 불참, 가정과 사회의 소극적 대응 등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도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김용만, 2002, p.2). 이러한 일본의 「주 5일 수업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최영자, 2001, p.25).

첫째, 일본은 「주 5일 수업제」도입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실험 학교 운영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했다.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월 1 회 학교 주 5일제를 도입하고, 1995년부터는 월 2회, 그리고 2002년부터 완전실시를 할 만큼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쳤다는 점이다.

둘째,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경제·노동 정책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교육의 논리를 추가하는 진행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실험학교 운영을 통한 실천적 문제 연구와 그 대응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먼저 「주 5일 수업제」 도입한 후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경제 논리를 우선한 「주 5일 수업제」의 실시로 교육의 관점을 크게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가정과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며, 지방 단체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철저한 준비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2, pp.159-160).

첫째, 「주 5일 수업제」의 논의가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 5일 수업제」가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성을 결여한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 5일 수업제」가 선진국들의 평균 등교일수인 180일에 일본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주 5일 수업제」가 교육을 위해서 실시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임시교육심의회는 주 5일 수업제를 제안하면서 ‘여유’ 개념을 강조하면서 주 5일 수업제와 어른들의 주휴 2일제가 실현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2002년 「주 5일 수업제」 완전 실시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아사히 신문 2002)에 의하면 약 59% 정도의 학부모가 주 5일 수업제를 좋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좋지 않은 이유로는 학력저하를 들고 있다.

일본의 「주 5일 수업제」는 비록 경제 논리와 같은 외적 요인에 기인하여 추진되었으나,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단계적 실시를 추진한 점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주목할 만하다.

## 나. 독일

독일은 16개 주 정부가 교육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교육자치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며, 따라서 16개 주별로 교육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주 5일 수업제」도 각 주별로 도입 과정, 운영 형태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주 교육부가 있으며, 이 주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에 관련된 사항도 주 교육부의 소관 사항이다.

독일에서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논의는 노동계의 주5일제 근무와 관련을 맺고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주5일제 근무는 학교에서도 주 5일 수업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노조를 중심으로 전파된 “토요일에 아버지는 내꺼야!”라는 구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수용되었다. 「주 5일 수업제」는 인간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주 5일 수업제」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주 5일 수업제」도입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해졌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찬반 양론의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논쟁되어 오던 「주 5일 수업제」는 1976년부터 독일 각 주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 5일 수업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부분적인 「주 5일 수업제」가 도입 시행되었다. 『학교운영』지의 1976년 제 3호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로서 1) 오후에 수업을 하는 경우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2) 학생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등교할 경우 버스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교원 및 교실의 부족 문제, 4) 진도가 늦은 학생에게 개별 지도를 행하는 촉진 수업 시간이 없어지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달에 1-2번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76년 각 주는 부분적인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 5일 수업제」에 대해서는 각 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결정을 학교에 맡겼다. 세세한 점에서는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상급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였다(정광희 외, 2000, p.40).

1992년 8월 1일 「주 5일 수업제」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의 권리가 확대되고, 독일 사회의 복지가 증대되고, 여가 사회로 변화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도입 여론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4-95년부터 주당 수업 시간수도 줄었다. 이를 통해 토요일 수업을 평일 오후 수업으로 대체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00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일반 교육 기관의 95%가 주 5일 수업제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학교에서는 토요일 수업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현재 독일에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기존의 격주 토요일 휴업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현황은 매 학년 초 주 교육부에 의하여 공포된다. 「주 5일 수업제」는 매년 그 지속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제도는 거의 완전히 정착된 제도로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의 「주 5일 수업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할 당시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주5일제와 관련된 주요 논의에서는 교육적 논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 5일 수업제」가 가져오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 5일 수업제」가 학생에게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할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현재의 학교 교육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 주 5일제가 가능한 지, 기타 교육적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주 5일 수업제」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치적인 고려나 경제적인 효과를 의식한 경제논리는 논의 가운데서 배제되었다. 교육적 논리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장점과 문제점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의 주 5일제 근무와도 별개로 시행되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도 찾을 수 없었다.

둘째, 독일의 「주 5일 수업제」는 학부모들의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하고 논의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휴무 토요일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학부모라는 의식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만약 학부모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무리하게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홀로 집에 방치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셋째, 독일의 「주 5일 수업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각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먼저 매달 1-2회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가 1970년대 중반부터 15년 정도 시행해오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지고 교육적 여건이 마련된 다음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에는 별 문제점 없이 완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넷째, 「주 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업 토요일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사회교육시설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토요일에 가정에

서 교육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여가시설, 스포츠시설, 놀이시설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가사회로 전환될 것이고 학생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여가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지닌다.

####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주 5일제’ ‘주 4일제’라는 표현대신 ‘학교시간조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시간조직은 학습의 주체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생체 리듬의 특성,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학교 시간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교의 수업일수라는 제한적 관점을 넘어 아동의 생활 환경 전반을 고려한 광의의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프랑스 학교시간조직의 시초는 아동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인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아동의 연가 학습 시간표를 농촌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수확시기에 학교로부터 아동의 일손을 풀어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는 노동현장에 부족한 장정들의 일손을 대신하고 대전 후에는 국가산업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손공급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에 따라 학교시간조직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기의 아동 및 학생들의 일과시간 조직에서 우선적인 참고사항은 교사의 법적 근무시간이었고 아동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는 생각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1962년부터 의사들이 아동들의 정상적인 심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무리한 일과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 Reinberg, Montagner, Testu와 같은 학자들이 학교시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직업 및 주거환경, 생활환경, 문화자원의 빈부 등이 아동들의 생활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대중의 여가 및 휴가 활동과 기대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방과 후 아동유치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바로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학교시간조직정

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매주 토요일이 아닌 수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반일제(反日制) 학교와는 달리, 24시간의 정규학습과 2시간의 지도학습 시간이 9개의 반나절에 배분되어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여유로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정하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프랑스는 우리의 용어로 특별활동이 강조된 주 5일 수업제 유형이다. 학생들은 수요일에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수요일의 학습 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인데, 학부모가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 가기도 하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해 준다. 파리의 학교는 수요일과 토요일 모두 쉬는 주 4일제 수업을 운영하며, 특별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다(교육부, 2001, p.18).

프랑스의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주 5일 수업제」라는 개념보다는 학습시간조직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프랑스의 학습시간조직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며, 그 흐름은 크게 종교적 영향 → 사회적·경제적 영향 → 교육학적 영향(아동의 관점: 생활 리듬과 학습 리듬의 관점)으로 특징지어진다.

셋째, 프랑스의 학교시간조직은 아동의 이익과 국가 경제 활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복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데 실천상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학교시간조직에서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관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아동과 학습에 효과 있는 학습시간조직을 위해 아동심리학, 생체주기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연간 의무교육시수를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기타 일과나 주당

시간표 구성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교 운영 형태가 병존하고 있다. 수요 휴업의 「주 5일 수업제」와 토요일 휴업의 「주 5일 수업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주 5일 수업제」학교 주4일제가 병존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부, 문화부, 청소년과 스포츠부가 연계 협력하여 ‘학교생활리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학교시간조직의 실험 운영을 중시한다(1992년 4300건). 청소년과 스포츠부처에서는 지역 실험사이트 자원 학교 신청을 받아 1년 현장 실험을 거쳐 새 시간표 조직의 성공이 인정되면 정식 인가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1995-1997년 171개 학교 인가). 특히, 새로운 학교 조직 시간에 대한 다양하고 대규모적인 실험 학교 운영을 위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들 실험 학교 운영에 대한 실험 자료는 연구 발표회 등을 통해 자료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실험 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시사적이다.

여덟째, 학교시간조직의 문제를 단순히 학교 수업시간만의 조직이 아니라 전인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학교시간조직문제를 기본적으로 학교 개방을 전제하여 접근하고 있다.

열째, 학교시간조직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과 재정의 합리적인 지출, 사회직업인군의 개발, 조직의 효율화, 학교 교육 파트너 망의 구축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열하나, 교육 여건 불리 지역에 대한 우선 교육 구역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시간조직은 아동의 생활리듬을 중시하고 전인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문화부-청소년과 스포츠부가 연계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이나 교사, 학부모, 지역 행정부,

민간 단체에 이르기까지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학교에 자율권 부여, 교육 여건 불리 지역에 대한 우선 교육 구역 정책, 학교시간조직의 성공을 위해 실험 학교 운영, 재정적 지원, 효율적인 관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 조건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정광희 외, 2000, pp.100-101).

### 라. 중국

중국의 「주 5일 수업제」는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90년대 초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중반에 이르러 실시된 새로운 학교 운영 제도이다.

중국에서 「주 5일 수업제」는 1995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 7월 중국의 교육부는 ‘주 40시간 노동제 이후 전국 전일제 중·소학교 교육과정의 부분 조정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여, 1995년 가을 학기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주 5일 수업제」를 도입·시행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중국에서 「주 5일 수업제」가 급속히 도입·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 불안과 실업률 증가라는 부정적 사회 현상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 노동 시간 개정’, ‘노동자 정년 조정안’ 등과 같은 대책과 함께, 1994년에는 국제 노동 시간과 일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 5일제 노동’을 발표하였고, 노동자들의 정년을 남녀 각각 55세와 50세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제적 조류나 국영 기업의 경영 합리화라는 표면적 이유가 제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시간 단축에 의한 내수 확대, 주휴 2일제를 이용해 전직을 위한 기능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정광희 외, 2000, p.89).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학교에서는 「주 5일 수업제」가 급속하게 도입·시행되었다.

중국이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교육열 증가에 있다. 80년대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아 제한으로 인해 교육열이 급격히 높아졌다. 즉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한 자녀에 국한된 교육 기회로 인해 교육열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주 5일 수업제」는 교육과는 별도의 논리로 도입되었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 및 준비 없이 급속히 도입되어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외 교육과 소년 선봉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학교 원조와 운영에 대한 참여,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와 관리 체제 구축의 사례 등이 당국에 자신감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주 5일 수업제」는 학교 뿐 아니라 국가 기관, 기업체가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업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의 학습 부담을 해소하고 여가 활동을 장려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없고, 입시 경쟁 때문에 평일에 과중한 수업을 하며, 지역 사회가 학생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있는 않는 곳이 많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중국의 「주 5일 수업제」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은 1990년대 중반 급속히 진행되었다. 즉 1994년 격주 5일제가 시행되고 1995년부터 완전 주5일제가 실시되었다.

둘째, 중국에서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적 도입은 1995년 5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교직원의 권리 문제로 연계되면서 제도화된 것이다. 이는 1993년 9년제 의무 교육 시행의 여파와 함께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주5일제는 우선 실시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 대응한다는, 선(先)실시 후(後)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전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교육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미흡했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많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 형태로 토요일에도 수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나, 사회 기관의 교육적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 주5일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가정도 많지 않으며, 교사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는커녕 학교 외 활동에 대한 부담까지 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넷째,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있어 편법적인 운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학습내용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단위 수업을 5분씩 감축한다거나 또는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방법으로 1일 7-8시간씩의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업 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보다 앞선 중국의 「주 5일 수업제」의 실시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여러 모로 중국과 교육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4. 국내 「주 5일 수업제」 운영 사례

<II-1> 국내의 「주 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 내용 분석

학교명	연구 주제	주5일 수업횟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일수 및 시수확보	활동 내용
안락초 (부산)	「주5일수업」을 통한 자기학습력 신장	· 월1회 (가정 학습)	· 6일제 수업(5일 교과수업+1일 특별프로그램 운영)	· 220일 수업일수 인정	· 가정 학습, 현장 체험 학습, 주제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 학교행사 정선
송원초 (광주)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교 경영의 효율화	· 매주1회	· 5일제 수업(토요일은 재택 수업)	· 220일 수업일수 인정	·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수업 · 재택수업가능한교과내용선정이수

사창초 (전남)	자기주도적학습력 신장을 위한 「주5일수업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월1-2회 (연10회)	· 6일제 수업	· 220일 · 방학 기간 조정	· 가정학습, 효도학 습, 자유탐구활동, 동아리 활동
창립초 (서울)	토요종합학습일 운영	· 격주 운영	· 종합학습일(‘책가 방 없는 날’)형식	· 220일	· 교과+재량+특별활 동(통합된 형식의 종합 학습일)
신기초 (서울)	자율성, 창의성 신장	· 6월이후 월1회 (총4회) 주말자율 체험학습일	· 토요 종합 학습일, 자유등교일, 주말 자율 체험 학습일 단계적 운영	· 220일 · 교육 과정 재구성 · 학교 행사 정선	· 3~6월: 토요종합 학습일(4회운영) · 6월 이후: 주말자 율 체험 학습일 4회
왕곡초 (경기)	주 5일 수업대비 교육과정 편성 운영	· 1학기 월2~3회 · 2학기 월3~4회 · 주말자율 체험학습일	· 토요 주말자율 체험 학습일 · 단계적 주말자율 체험 학습일 확대	· 학년별 14~16일 감축 · 교육 과정 재구성	· 체험활동 프로그 램 운영 · 주말자율 체험 학습 일 선택 학습 프로 그램(나홀로 학 생)

자료 : 경기도교육청(2003). 「주 5일 수업」 시행 대비 업무 추진계획

## 5. 「주 5일 수업제」의 단계적 모형

이 모형은 학술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2001년 「주 5일 수업제」 선도학교를 운영한 결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여 구안된 모형이다. 「주 5일 수업제」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일반화된 모형으로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수업일수, 교과수업시수의 감축 없이 「주 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모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 가. 토요종합학습일

현행 교육과정 체제 및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 모형이다. 종전의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현장학습의 날’ 운영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주 5일 수업제」완전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토요종합학습일은 교과별 체험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교과와 연계된 활동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활동하므로 각 교과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따라서 토요종합학습일은 체험활동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나. 토요자유등교일

토요자유등교일은 다양한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활동을 안내해 주고,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인 토요휴업일 운영에 대비한 자율적인 선택, 학습능력을 기르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 교과에서 추출한 체험활동 요소 중 가정,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나 토요종합학습일과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 주고, 재택학습활동 후에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업일수, 수업시수로 인정한다. 가정에서의 체험활동이 불가능한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여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 시설과 학부모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토요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다. 토요휴업일

토요휴업일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평생학습사회에 대처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완전한 「주 5일 수업제」 단계로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토요일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닌 휴업일로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실시를 하려면 학교 수업일수 감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 수업시수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주 5일 수업제」 완전 실시에 따른 지역시설의 활용 및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6. 제7차 교육과정 편제에서의 「주 5일 수업제」 분석

제7차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학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도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전과는 달리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을 확대해 주었고, 주당 수업시간 수가 아닌 연간 수업시간 수 제시, 재량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의 증배는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를 보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정상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세 영역에 “토요일휴업일 활동” 또는 “토요체험활동”이라는 영역을 포함시켜 네 가지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휴업일 활동을 교육과정 편제에서 명시하고 학년별 활동목표, 활동내용도 선정해서 조직해야 「주 5일 수업제」

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유한구,1999,p47)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의 6개의 교과로 하고, 3, 4학년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로 9개 교과로 하며, 5, 6학년은 실과를 포함하여 10개 교과로 하였다. 저학년에서의 통합교과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개념이 아니라 활동중심 주제에 의한 탈교과적인 통합방식으로 통합교과를 조직했는데 「주 5일 수업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3, 4학년 뿐만 아니라 나아가 5, 6학년에서도 주제통합에 의한 통합교과가 선정 조직되어야 한다.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 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제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연간 최소 68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수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배당이 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배정할 수 있으므로 내용구성과 시간배당을 적정화하여 토요일휴업일 활동과 중복되지 않고 연계되도록 조직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의 실시는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와 총 수업시수의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주 5일 수업제」인 매월 4-5회의 토요일휴업일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수업일수는 감소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한 법정 수업일수 220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정수업일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연간 34-35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총 수업시수 개념을 도입한다거나 연간 수업주수를 제시하는 등 연간 수업일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가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

만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표Ⅱ-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

교과		학년		1	2	3	4	5	6
교과	국어	국어 210 238		238	204	204	204	204	204
	도덕			34	34	34	34	34	34
	사회	수학 120 136		102	102	102	102	102	102
	수학			136	136	136	136	136	136
	과학	바른 생활 60 68		102	102	102	102	102	102
	실과	슬기로운 생활 90 102						68	68
	체육			102	102	102	102	102	102
	음악	즐거운 생활 180 204		68	68	68	68	68	68
	미술			68	68	68	68	68	68
	외국어	우리들은 1학년 80		34	34	68	68	68	68
재량활동		68	68	68	68	68	68	68	68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연간수업시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088	1,088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이다.

\* 1학년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시간수를 제시한 것이다.(김재복 외,1999, P.61)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은 6개 교육청 25개 학교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배경 변인인 성별(남, 여), 교직경력(1년 이상-10년 미만, 11년 이상-20년 미만, 21년 이상), 학교급지(A, B, C, D), 직위(부장교사이상, 교사), 학력(대졸이하, 대학원졸)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300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276부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 설문지 15부와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248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Ⅲ-1>과 같다.

<Ⅲ-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대상	학교수	표집학교수	배부된수	회수된수(%)	유효자료수(%)
부산광역시공립초등학교	279	25	300	276(92.0%)	248(82.7%)

조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는 <Ⅲ-2>와 같다.

<Ⅲ-2> 조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구분	성별		교육경력			급지				직위		학력		계
	남자	여자	1년 이상 10년 미만	11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A	B	C	D	부장 이상	교사	대 졸 이 하	대 학 원 졸	
표집수	43	205	98	73	77	48	100	67	33	64	184	205	43	248
%	17.3	82.7	39.5	29.4	31.1	19.4	40.3	27.0	13.3	25.8	74.2	82.7	17.3	100

## 2. 측정 도구

### 가. 설문조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조한(2002), 이미라(2002), 이윤미 외(2001), 유한구 외 2인(1999)이 제작한 것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표Ⅲ-3>과 같이 제작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 항목 설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도교수 및 전문가 2명의 자문을 받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9월 11일에 시작하여 9월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학교별로 교육청 민원함과 인편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 나.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및 문제점,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3영역 29문항으로 <Ⅲ-3>과 같이 구성하였다.

<Ⅲ-3> 설문조사 문항 구성

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인식 정도	I-1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의견	I-2,3,4
	· 「주 5일 수업제」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I-5,6,7
	· 「주 5일 수업제」로 해결될 수 있는 현 교육문제	I-8
	·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	I-9

	· 현행 교육 과정의 「주 5일 수업제」 적합성	Ⅱ-1
	· 전면적 「주 5일 수업제」 시행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Ⅱ-2
	·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시 우선 고려사항	Ⅱ-3
	· 「주 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	Ⅱ-4
	· 「주 5일 수업제」 시행시 토요일휴업일 활용 방향	Ⅱ-5
「주 5일 수업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장애가 될 교육체제	Ⅱ-6
	·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한 법정 수업시수 확보방안	Ⅱ-7
	·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수업일수 재조정 방안	Ⅱ-8
	·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적정 연간 수업일수	Ⅱ-9,10
	·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 내용 영역의 개선점	Ⅱ-11
	· 전면적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교육 내적 조건	Ⅱ-12
	· 「주 5일 수업제」를 대체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Ⅱ-13
	· 효과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휴업일 선정 문제	Ⅱ-14
	· 현 시점의 사회적 인프라에 관한 문제	Ⅲ-1
	·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Ⅲ-2
「주 5일 수업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충원되어야 할 인력 분야	Ⅲ-3
	· 현 상태의 사회인프라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Ⅲ-4
	·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Ⅲ-5
	· 사회인프라 보완을 위한 학교프로그램 운용에 따른 교사의 근무 방안	Ⅲ-6

### 3. 자료 분석

자료의 처리는 조사의 목적과 결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5일 수업』에 대한 교원의 성별, 교육경력별, 직위별, 학교급지별, 학력별 특성에 따라 빈도의 백분율을 산출하고 집단 간 응답분포의 차를 검증하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효과 및 문제점 인식

#### 가. 「주 5일 수업제」 도입 취지에 대한 인식

현행 월2회 시행을 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에 대한 인식은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55.6%), ‘대충은 알고 있다’(40.3%)의 순으로 95.9%의 교원들이 「주 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IV-1>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chi^2$
성별	남	24(55.8)	14(32.6)	4(9.3)	1(2.3)	43(100.0)	10.159*
	여	114(55.6)	86(42.0)	5(2.4)	0(0.0)	205(10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35(35.7)	58(59.2)	4(4.1)	1(1.0)	98(100.0)	29.526**
	11년 이상-20년 이하	48(65.8)	21(28.8)	4(5.5)	0(0.0)	73(100.0)	
	21년 이상	55(71.4)	21(27.3)	1(1.3)	0(0.0)	77(100.0)	
급지	A	31(64.6)	15(31.3)	2(4.2)	0(0.0)	48(100.0)	15.767
	B	61(61.0)	37(37.0)	2(2.0)	0(0.0)	100(100.0)	
	C	26(38.8)	35(52.2)	5(7.5)	1(1.5)	67(100.0)	
	D	20(60.6)	13(39.4)	0(0.0)	0(0.0)	33(100.0)	
직위	부장교사이상	48(75.0)	15(23.4)	1(1.6)	0(0.0)	64(100.0)	13.269**
	교사	90(48.9)	85(46.2)	8(4.3)	1(0.5)	184(100.0)	
학력	대졸이하	109(53.2)	87(42.4)	8(3.9)	1(0.5)	205(100.0)	3.068
	대학원졸	29(67.4)	13(30.2)	1(2.3)	0(0.0)	43(100.0)	
전체		138(55.6)	100(40.3)	9(3.6)	1(0.4)	248(100.0)	

\* p<.05, \*\*<.01

- \_\_\_\_\_① 정확히 알고 있다.  
 \_\_\_\_\_② 대충은 알고 있다.  
 \_\_\_\_\_③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  
 \_\_\_\_\_④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성별로는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10.159$   $p < .05$ )

경력별로는 ‘정확히 알고 있다’와 ‘대충은 알고 있다’에 21년 이상(98.7%), 11년 이상-20년 이하(95.6%), 1년 이상-10년 이하(94.9%)의 반응을 보여 경력이 높을수록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29.526$   $p < .01$ )

급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정확히 알고 있다’에 교사(48.9%)보다는 부장교사이상(75.0%)이 더 높은 반응을 보여 직위가 높을수록 도입취지에 대해 더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13.269$   $p < .01$ )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이상 교사(67.4%)가 대학졸 이하 교사(53.2%)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나.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대한 의견

현행 월2회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더욱 확대하여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적극 찬성한다’(67.3%), ‘대체로 찬성한다’(29.8%), ‘대체로 반대한다’(2.8%)의 순으로 97.0%의 교원들이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IV-2>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32(74.4)	11(25.6)	0(0)	0(0)	0(0)	43(100)	2.171
	여	135(65.9)	63(30.7)	7(3.4)	0(0)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66(67.3)	29(29.6)	3(3.1)	0(0)	0(0)	98(100)	0.140
	11년 이상-20년 이하	50(68.5)	21(28.8)	2(2.7)	0(0)	0(0)	73(100)	
	21년 이상	51(66.2)	24(31.2)	2(2.6)	0(0)	0(0)	77(100)	
급지	A	39(81.3)	9(18.8)	0(0)	0(0)	0(0)	48(100)	9.103
	B	63(63.0)	34(34.0)	3(3.0)	0(0)	0(0)	100(100)	
	C	43(64.2)	20(29.9)	4(6.0)	0(0)	0(0)	67(100)	
	D	22(66.7)	11(33.3)	0(0)	0(0)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45(70.3)	16(25.0)	3(4.7)	0(0)	0(0)	64(100)	1.853
	교사	122(66.3)	58(31.5)	4(2.2)	0(0)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138(67.3)	62(30.2)	5(2.4)	0(0)	0(0)	205(100)	0.681
	대학원졸	29(67.4)	12(27.9)	2(4.7)	0(0)	0(0)	43(100)	
전체		167(67.3)	74(29.8)	7(2.8)	0(0)	0(0)	248(100)	

- \_\_\_\_\_ ① 적극 찬성한다.  
 \_\_\_\_\_ ② 대체로 찬성한다.  
 \_\_\_\_\_ ③ 대체로 반대한다.  
 \_\_\_\_\_ ④ 적극 반대한다.  
 \_\_\_\_\_ ⑤ 잘 모르겠다.

2번 문항의 전면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서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에 응답한 응답자 중 그 이유는 <IV-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문화행사참여, 견학, 여행이 가능하다’(58.9%), ‘가족과의 활동시간이 많아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30.7%)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경력별, 급지별, 직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두 집단 모두 ‘문화 행사참여, 견학, 여행이 가능하다’에 대졸

<IV-3>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3(7.0)	6(14.0)	21(48.8)	5(11.6)	8(18.6)	43(100)	4.584
	여	8(4.0)	13(6.6)	125(63.1)	18(9.1)	34(17.2)	198(100)	
경력	1년 이상-10년 미만	3(3.2)	3(3.2)	64 (67.4)	10(10.5)	15(15.8)	95(100)	8.017
	11년 이상-20년 미만	4(5.6)	6(8.5)	41 (57.7)	7(9.9)	13(18.3)	71(100)	
	21년 이상	4(5.3)	10(13.3)	41 (54.7)	6(8.0)	14(18.7)	75(100)	
급지	A	5(10.4)	3(6.3)	25 (52.1)	5(10.4)	10(20.8)	48(100)	18.512
	B	1(1.0)	4(4.1)	63 (64.9)	11(11.3)	18(18.6)	97(100)	
	C	4(6.3)	6(9.5)	36 (57.1)	5(7.9)	12(19.0)	63(100)	
	D	1(3.0)	6(18.2)	22 (66.7)	2(6.1)	2(6.1)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3(4.9)	9(14.8)	33 (54.1)	4(6.6)	12(19.7)	61(100)	6.478
	교사	8(4.4)	10(5.6)	113(62.8)	19(10.6)	30(16.7)	180(100)	
학력	대졸이하	5(2.5)	13(6.5)	123(61.5)	22(11.0)	37(18.5)	200(100)	17.384**
	대학원졸	6(14.6)	6(14.6)	23(56.1)	1(2.4)	5(12.2)	41(100)	
전체		11(4.4)	19(7.7)	146(58.9)	23(9.3)	42(16.9)	241(97.2)	

\*\* p<.01

- \_\_\_\_\_ ① 학습 능력과 학습 의욕이 높아진다.
- \_\_\_\_\_ ②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길러진다.
- \_\_\_\_\_ ③ 문화행사, 참여, 견학, 여행이 가능하다.
- \_\_\_\_\_ ④ 소질 계발이나 특기활동이 용이하다.
- \_\_\_\_\_ ⑤ 가족과의 활동시간이 많아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하(61.5%), 대학원졸이상(56.1%)로 높은 호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다음 순으로 대졸이하는 ‘가족과의 활동시간이 많아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18.5%), ‘소질 계발이나 특기활동이 용이하다’(11.0%)로 답한 반면, 대학원졸이상은 ‘학습능력과 학습의욕이 높아진다’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길러진다’에 각각 14.6%의 답을 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7.384$  p<.01) 이는 대졸이하 교사는 아동의 인성과 특기신장에

중점을 두는 반면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는 아동의 학습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 문항 전면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서 ‘대체로 반대한다’에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로 아주 낮았다. 그 이유는 <IV-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교육 체험 부족현상’(1.2%), ‘사회적 인프라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부족’(0.8%) 순으로 나타났다.

<IV-4>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0(0)	0(0)	0(0)	0(0)	0(0)	0(0)	
	여	0(0)	2(28.6)	3(42.9)	1(14.3)	1(14.3)	7(100)	
경력	1년 이상-10년 미만	0(0)	2(66.7)	0(0)	0(0)	1(33.3)	3(100)	9.333
	11년 이상-20년 미만	0(0)	0(0)	1(50.0)	1(50)	0(0)	2(100)	
	21년 이상	0(0)	0(0)	2(100)	0(0)	0(0)	2(100)	
급지	A	0(0)	0(0)	0(0)	0(0)	0(0)	0(0)	2.236
	B	0(0)	1(33.3)	1(33.3)	1(33.3)	0(0)	3(100)	
	C	0(0)	1(25.0)	2(50.0)	0(0)	1(25.0)	4(100)	
	D	0(0)	0(0)	0(0)	0(0)	0(0)	0(0)	
직위	부장교사이상	0(0)	0(0)	3(100)	0(0)	0(0)	3(100)	7.000
	교사	0(0)	2(50.0)	0(0)	1(25.0)	1(25.0)	4(100)	
학력	대졸이하	0(0)	1(20.0)	2(40.0)	1(20.0)	1(20.0)	5(100)	1.283
	대학원졸	0(0)	1(50.0)	1(50.0)	0(0)	0(0)	2(100)	
전체		0(0)	2(0.8)	3(1.2)	1(0.4)	1(0.4)	7(2.8)	

- \_\_\_\_\_ ①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 \_\_\_\_\_ ② 사회적 인프라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 \_\_\_\_\_ ③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교육 체험 부족 현상
- \_\_\_\_\_ ④ 학원 학습으로 인한 학습비 부담 가중
- \_\_\_\_\_ ⑤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다. 「주 5일 수업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주 5일 수업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비교적 있다’(64.5%), ‘효과가 매우 크다’(14.5%)의 순으로 79.0%의 교원들이 「주 5일 수업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 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5>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8 (18.6)	26(60.5)	5(11.6)	4(9.3)	0 (0)	43(100)	1.072
	여	28(13.7)	134(65.4)	26(12.7)	16(7.8)	1(0.5)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미만	12(12.2)	66(67.3)	14(14.3)	5(5.1)	1(1.0)	98(100)	6.233
	11년 이상-20년 미만	13(17.8)	44(60.3)	7(9.6)	9(12.3)	0(0)	73(100)	
	21년 이상	11(14.3)	50(64.9)	10(13.0)	6(7.8)	0(0)	77(100)	
급지	A	9(18.8)	33(68.8)	4(8.3)	2(4.2)	0(0)	48(100)	9.841
	B	14(14.0)	68(68.0)	11(11.0)	7(7.0)	0(0)	100(100)	
	C	10(14.9)	37(55.2)	12(17.9)	7(10.4)	1(1.5)	67(100)	
	D	3(9.1)	22(66.7)	4(12.1)	4(12.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1(17.2)	36(56.3)	7(10.9)	10(15.6)	0(0)	64(100)	7.968
	교사	25(13.6)	124(67.4)	24(13.0)	10(5.4)	1(0.5)	184(100)	
학력	대졸이하	28(13.7)	135(65.9)	28(13.7)	14(6.8)	0(0)	205(100)	9.201
	대학원졸	8(18.6)	25(58.1)	3(7.0)	6(14.0)	1(2.3)	43(100)	
전체		36(14.5)	160(64.5)	31(12.5)	20(8.1)	1(0.4)	248(100)	

- \_\_\_\_\_ ① 효과가 매우 크다.
- \_\_\_\_\_ ② 효과가 비교적 있다.
- \_\_\_\_\_ ③ 종전과 같다.
- \_\_\_\_\_ ④ 효과가 적다.
- \_\_\_\_\_ ⑤ 효과가 전혀 없다.

5번 문항의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 신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14.5%), ‘효과가 비교적 있다’(64.5%)에 응답한 응답자 중 그 이유는 <IV-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에서 오는 집중력의 증가’(29.8%), ‘주 5일간의 집약된 시간의 활용’(23.8%)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IV-6> 학습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4(11.8)	10(29.4)	5(14.7)	15(44.1)	0(0)	34(100)	9.012*
	여	28(17.3)	21(13.0)	54(33.3)	59(36.4)	0(0)	162(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4(17.9)	14(17.9)	13(16.7)	37(47.4)	0(0)	78(100)	13.878*
	11년 이상-20년 이하	9(15.8)	11(19.3)	20(35.1)	17(29.8)	0(0)	57(100)	
	21년 이상	9(14.8)	6(9.8)	26(42.6)	20(32.8)	0(0)	61(100)	
급지	A	8(19.0)	3(7.1)	14(33.3)	17(40.5)	0(0)	42(100)	6.201
	B	15(8.3)	15(18.3)	21(25.6)	31(37.8)	0(0)	82(100)	
	C	6(12.8)	10(21.3)	16(34.0)	15(31.9)	0(0)	47(100)	
	D	3(12.0)	3(12.0)	8(32.0)	11(44.0)	0(0)	25(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6(12.8)	7(14.9)	19(40.4)	15(31.9)	0(0)	47(100)	3.261
	교사	26(17.4)	24(16.1)	40(26.8)	59(39.6)	0(0)	149(100)	
학력	대졸이하	26(16.0)	24(14.7)	50(30.7)	63(38.7)	0(0)	163(100)	1.125
	대학원졸	6(18.2)	7(21.2)	9(27.3)	11(33.3)	0(0)	33(100)	
전체		32(12.9)	31(12.5)	59(23.8)	74(29.8)	0(0)	196(79)	

\* p<.05

- \_\_\_\_\_ ① 주 2일의 휴식에 대한 기대
- \_\_\_\_\_ ② 교사들의 학습계획과 자료 준비 시간의 확보
- \_\_\_\_\_ ③ 주 5일간의 집약된 시간의 활용
- \_\_\_\_\_ ④ 충분한 휴식에서 오는 집중력의 증가

성별로는 ②,④번 문항에 대해 여교사(13%)보다 남교사(29.4%)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 = 9.012$  p<.05)

경력별로는 ‘주 2일의 휴식에 대한 기대’가 경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주 5일간의 집약된 시간의 활용’은 경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 = 13.878$  p<.05)

급지별, 직위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번 문항의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 신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서 ‘효과가 적다’(8.1%), ‘효과가 전혀 없다’(0.4%)에 응답한 응답자 중 그 이유는 <IV-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 수업시간에 해야 할 학습량이 많아서’(5.6%)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IV-7> 학습 효과가 적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25.0)	2(50.0)	1(25.0)	0(0)	0(0)	4(100)	3.222
	여	1(5.9)	12(70.6)	4(23.5)	0(0)	0(0)	17(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16.7)	4(66.7)	1(16.7)	0(0)	0(0)	6(100)	7.920
	11년 이상-20년 이하	1(11.1)	8(88.9)	0(0)	0(0)	0(0)	9(100)	
	21년 이상	0(0)	2(33.3)	4(66.7)	0(0)	0(0)	6(100)	
급지	A	0(0)	2(100)	0(0)	0(0)	0(0)	2(100)	4.746
	B	1(14.3)	5(71.4)	1(14.3)	0(0)	0(0)	7(100)	
	C	1(12.5)	4(50.0)	3(37.5)	0(0)	0(0)	8(100)	
	D	0(0)	3(75.0)	1(25.0)	0(0)	0(0)	4(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10.0)	4(40.0)	5(50.0)	0(0)	0(0)	10(100)	.266
	교사	1(9.1)	10(90.9)	0(0)	0(0)	0(0)	11(100)	
학력	대졸이하	0(0)	9(64.3)	5(35.7)	0(0)	0(0)	14(100)	2.098
	대학원졸	2(28.6)	5(71.4)	0(0)	0(0)	0(0)	7(100)	
전체		2(0.8)	14(5.6)	5(2.0)	0(0)	0(0)	21(8.5)	

\_\_\_\_\_① 수업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_\_\_\_\_② 단위 수업시간에 해야 할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_\_\_\_\_③ 휴일 기분이 다음 날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_\_\_\_\_④ 생활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배경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연간 220일 주 6일 수업을 기준으로 짜여진 것으로서 수업일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가르쳐야 하는 교과목의 수와 학습량을 줄여 학습 부담을 경감 시켜 줘야 됨을 나타낸다.

### 라. 「주 5일 수업제」로 해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주 5일 수업제」로 해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한 학습의

<IV-8> 「주 5일 수업제」의 교육적 역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2(27.9)	6(14.0)	23(53.5)	0(0)	2(4.7)	43(100)	14.887*
	여	36(17.6)	6(2.9)	141(68.8)	13(6.3)	9(4.4)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8(18.4)	4(4.1)	70(71.4)	4(4.1)	2(2.0)	98(100)	7.125
	11년 이상-20년 이하	16(21.9)	2(2.7)	47(64.4)	5(6.8)	3(4.1)	73(100)	
	21년 이상	14(18.2)	6(7.8)	47(61)	4(5.2)	6(7.8)	77(100)	
급지	A	9(18.8)	1(2.1)	33(68.8)	2(4.2)	3(6.3)	48(100)	7.052
	B	18(18.0)	3(3.0)	70(70)	6(6.0)	3(3.0)	100(100)	
	C	13(19.4)	6(9.0)	40(59.7)	4(6.0)	4(6.0)	67(100)	
	D	8(24.2)	2(6.1)	21(63.6)	1(3.0)	1(3.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3(20.3)	9(14.1)	37(57.8)	2(3.1)	3(4.7)	64(100)	16.860**
	교사	35(19.0)	3(1.6)	127(69.0)	11(6.0)	8(4.3)	184(100)	
학력	대졸이하	36(17.6)	8(3.9)	140(68.3)	12(5.9)	9(4.4)	205(100)	5.794
	대학원졸	12(27.9)	4(9.3)	24(55.8)	1(2.3)	2(4.7)	43(100)	
전체		48(19.4)	12(4.8)	164(66.1)	13(5.2)	11(4.4)	248(100)	

\* p<.05, \*\*<.01

- \_\_\_\_\_①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 개발
- \_\_\_\_\_② 교사 연구 시간 확대 및 업무 경감
- \_\_\_\_\_③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
- \_\_\_\_\_④ 교과 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체험
- \_\_\_\_\_⑤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효율성'(66.1%),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 개발'(19.4%), '교과 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체험'(5.2%), '교사 연구 시간 확대 및 업무 경감'(4.8%),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활성화'(4.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아동들의 체험학습 부족을 현 교육의 문제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 = 14.887$   $p < .05$ )

경력별, 급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부장교사이상(57.8%)과 교사(69%)모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부장교사이상의 응답률이 교사보다 11.2%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6.860$   $p < .01$ ) 이는 체험학습 중의 안전사고에 대해 부장교사, 교감, 교장이 일반교사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장교사이상은 '교사 연구 시간 확대 및 업무경감'(14.1%)에 교사보다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더 많은 업무로 인해 학습결손이 더 생김을 나타내며 관리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마. 「주 5일 수업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

「주 5일 수업제」 문제점 해결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29.0%),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27.0%),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가정의 여건 조성'(18.5%), '학교 행사 축소를 통한 수업일수의 확

보'(16.9%) 순으로 나타났다.

<IV-9> 「주 5일 수업제」 문제점의 해결 방안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1(25.6)	9(20.9)	11(25.6)	6(14.0)	6(14.0)	43(100)	5.953
	여	31(15.1)	63(30.7)	56(27.3)	40(19.5)	15(7.3)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7(17.3)	27(27.6)	26(26.5)	19(19.4)	9(9.2)	98(100)	5.767
	11년 이상-20년 이하	13(17.8)	24(32.9)	23(31.5)	8(11.0)	5(6.8)	73(100)	
	21년 이상	12(15.6)	21(27.3)	18(23.4)	19(24.7)	7(9.1)	77(100)	
급지	A	7(14.6)	20(41.7)	15(31.3)	2(4.2)	4(8.3)	48(100)	20.971
	B	12(12.0)	32(32.0)	26(26.0)	22(22.0)	8(8.0)	100(100)	
	C	18(26.9)	15(22.4)	16(23.9)	12(17.9)	6(9.0)	67(100)	
	D	5(15.2)	5(15.2)	10(30.3)	10(30.3)	3(9.1)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1(17.2)	16(25.0)	21(32.8)	8(12.5)	8(12.5)	64(100)	4.917
	교사	31(16.8)	56(30.4)	46(25.0)	38(20.7)	13(7.1)	184(100)	
학력	대졸이하	32(15.6)	66(32.2)	49(23.9)	40(19.5)	18(8.8)	205(100)	10.273*
	대학원졸	10(23.3)	6(14.0)	18(41.9)	6(14.0)	3(7.0)	43(100)	
전체		42(16.9)	72(29.0)	67(27.0)	46(18.5)	21(8.5)	248(100)	

\*  $p < .05$

- ① 학교 행사 축소를 통한 수업일수의 확보
- ② 7차 교육과정의 축소 운영
- ③ 「주 5일 수업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 ④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가정의 여건 조성
- ⑤ 사회적 인프라 구축

성별, 경력별, 급지별, 직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하의 교사보다는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가 ‘「주 5일 수업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41.9%)의 필요성에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 = 10.273$ )

p<.05) 특히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는 ‘학교 행사 축소를 통한 수업일수의 확보’(23.3%)에 많은 응답률을 보여 학교행사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 가. 현행 교육 과정의 「주 5일 수업제」 적합성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적합성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54.0%), ‘조금 그렇다’(31.5%), ‘매우 그렇지 않다’(9.7%), ‘매우 그렇다’(4.8%) 순으로 나타났다.

<IV-10> 현행 교육 과정의 「주 5일 수업제」 적합성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2(4.7)	11(25.6)	24(55.8)	6(14.0)	0(0)	43 (100)	1.587
	여	10(4.9)	67(32.7)	110(53.7)	18(8.8)	0(0)	205 (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2(2.0)	32(32.7)	55(56.1)	9(9.2)	0(0)	98 (100)	13.573*
	11년 이상-20년 이하	5(6.8)	18(24.7)	37(50.7)	13(17.8)	0(0)	73 (100)	
	21년 이상	5(6.5)	28(36.4)	42(54.5)	2(2.6)	0(0)	77 (100)	
급지	A	0(0)	16(33.3)	29(60.4)	3(6.3)	0(0)	48 (100)	11.949
	B	9(9.0)	31(31.0)	53(53.0)	7(7.0)	0(0)	100 (100)	
	C	2(3.0)	23(34.3)	32(47.8)	10(14.9)	0(0)	67 (100)	
	D	1(3.0)	8(24.2)	20(60.6)	4(12.1)	0(0)	33 (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5(7.8)	16(25.0)	39(60.9)	4(6.3)	0(0)	64 (100)	4.526
	교사	7(3.8)	62(33.7)	95(51.6)	20(10.9)	0(0)	184 (100)	
학력	대졸이하	10(4.9)	67(32.7)	107(52.2)	21(10.2)	0(0)	205 (100)	1.704
	대학원졸	2(4.7)	11(25.6)	27(62.8)	3(7.0)	0(0)	43 (100)	
전체		12(4.8)	78(31.5)	134(54.0)	24(9.7)	0(0)	248 (100)	

\* p<.05

- \_\_\_\_\_① 매우 그렇다.
- \_\_\_\_\_② 조금 그렇다.
- \_\_\_\_\_③ 그렇지 않다.
- \_\_\_\_\_④ 매우 그렇지 않다.

성별, 급지별, 직위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경력이 낮을수록 현행 교육 과정이 「주 5일 수업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 = 13.573$   $p < .05$ )

### 나.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을

<IV-11>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2(4.7)	26(60.5)	12(27.9)	3(7.0)	0(0)	43(100)	3.710
	여	5(2.4)	146(71.2)	49(23.9)	5(2.4)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3(3.1)	70(71.4)	22(22.4)	3(3.1)	0(0)	98(100)	6.347
	11년 이상-20년 이하	2(2.7)	43(58.9)	25(34.2)	3(4.1)	0(0)	73(100)	
	21년 이상	2(2.6)	59(76.6)	14(18.2)	2(2.6)	0(0)	77(100)	
급지	A	2(4.2)	36(75.0)	10(20.8)	0(0)	0(0)	48(100)	11.461
	B	1(1.0)	74(74.0)	23(23.0)	2(2.0)	0(0)	100(100)	
	C	2(3.0)	45(67.2)	16(23.9)	4(6.0)	0(0)	67(100)	
	D	2(6.1)	17(51.5)	12(36.4)	2(6.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3(4.7)	44(68.8)	15(23.4)	2(3.1)	0(0)	64(100)	1.117
	교사	4(2.2)	128(69.6)	46(25)	6(3.3)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5(2.4)	150(73.2)	42(20.5)	8(3.9)	0(0)	205(100)	12.892**
	대학원졸	2(4.7)	22(51.2)	19(44.2)	0(0)	0(0)	43(100)	
전체		7(2.8)	172(69.4)	61(24.6)	8(3.2)	0(0)	248(100)	

\*\*  $p < .01$

- \_\_\_\_\_① 현행의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  
 \_\_\_\_\_② 7차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제」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  
 \_\_\_\_\_③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_\_\_\_\_④ 단위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_\_\_\_\_⑤ 기타 (                    )

주 5일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69.4%),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24.6%), ‘단위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3.2%), ‘현행의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2.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현행의 7차 교육과정 축소 운영을 선호하는 반면 남교사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11년 이상-20년 이하의 교사가 10년 이하, 21년 이상의 교사보다 「주 5일 수업제」 완전 실시에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급지가 좋을수록 현행 7차 교육과정 축소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이상보다 현행 7차 교육과정 축소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이상 교사(44.2%)가 대학졸 이하 교사(20.5%)에 비해 현행의 7차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12.892$   $p < .001$ )

이상과 같이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시의 교육과정 운영은 현행의 7차 교육과정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 다.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시 우선적 고려 사항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시 우선적 고려 사항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 과목의 교육내용을 줄인다’(9.3%),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의 통합교과를 운영한다’(6.9%), ‘휴업일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한다(4.8%), ‘교과목의 수를 줄인다’(3.6%) 순으로 나타났다.

<IV-12>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시 우선적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3 (25.0)	7(58.3)	2(16.7)	0(0)	0(0)	12(100)	6.981
	여	6(12.2)	16(32.7)	10(20.4)	17(34.7)	0(0)	49(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2(9.1)	8(36.4)	4(18.2)	8(36.4)	0(0)	22(100)	7.976
	11년 이상-20년 이하	7(28.0)	8(32.0)	4(16.0)	6(24.0)	0(0)	25(100)	
	21년 이상	0(0)	7(50.0)	4(28.6)	3(21.4)	0(0)	14(100)	
급지	A	2(20.0)	3(30.0)	1(10.0)	4(40.0)	0(0)	10(100)	7.827
	B	4(17.4)	5(21.7)	6(26.1)	8(34.8)	0(0)	23(100)	
	C	2(12.5)	9(56.3)	2(12.5)	3(18.8)	0(0)	16(100)	
	D	1(8.3)	6(50.0)	3(25.0)	2(16.7)	0(0)	12(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3(20.0)	6(40.0)	3(20.0)	3(20.0)	0(0)	15(100)	.842
	교사	6(13.0)	17(37.0)	9(19.6)	14(30.4)	0(0)	46(100)	
학력	대졸이하	6(14.3)	18(42.9)	5(11.9)	13(31.0)	0(0)	42(100)	5.565
	대학원졸	3(15.8)	5(26.3)	7(36.8)	4(21.1)	0(0)	19(100)	
전체		9(3.6)	23(9.3)	12(4.8)	17(6.9)	0(0)	61(100)	

- \_\_\_\_\_ ① 교과목의 수를 줄인다.
- \_\_\_\_\_ ② 각 과목의 교육 내용을 줄인다.
- \_\_\_\_\_ ③ 휴업일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한다.
- \_\_\_\_\_ ④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의 통합교과를 운영한다.
- \_\_\_\_\_ ⑤ 기타 ( )

성별로는 남교사가 각 과목의 교육내용 축소를 선호하는 반면 여교사는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의 통합교과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21년 이상의 교사가 11년 이상-20년 이하의 교사, 10년 이하의 교사보다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급지가 좋을수록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의 통합교과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이상보다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의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이상 교사(44.2%)가 휴업일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대학졸 이하 교사(20.5%)는 각 과목의 교육 내용을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시 우선적 고려 사항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각 과목의 교육내용을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 라.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전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업시수감축’(32.2%), ‘교육과정개정’(21.6%), ‘사회교육시설확보’(14.8%), ‘체험활동프로그램’(12.6%),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한 대책’(12.0%), ‘자원봉사자확보’(2.3%), 입시제도개선’(2.3%), ‘학부모교육프로그램’(1.7%), ‘교사연수프로그램’(0.4%)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별, 급지별, 직위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수업시수감축, 교육과정개정, 사회교육시설확보, 체험활동프로그램,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IV-13>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전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

단위: 명(%)

구분		수업 수감축	교육 과개정	사회 교육 시설 확보	체험 활동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입 시 제도 개선	자 원 사 확 보	학 부 교 육 프 로 그 램	적 당 성 비 율 제 고	기 타	전 체	$\chi^2$
성 별	남	15 (35.3)	8 (18.2)	8 (18.2)	5 (11.6)	1 (1.2)	1 (3.1)	1 (1.2)	1 (1.6)	4 (9.7)	0 (0)	43 (100)	13.600
	여	65 (31.5)	46 (22.4)	29 (14.1)	26 (12.8)	1 (0.2)	4 (2.1)	5 (2.5)	4 (1.8)	26 (12.5)	0 (0)	205 (100)	
경 력	1년 이상 10년 이하	30 (30.4)	21 (21.4)	18 (18.0)	13 (13.1)	1 (1.0)	2 (1.7)	1 (1.4)	2 (1.9)	11 (11.1)	0 (0)	98 (100)	23.532
	11년 이상 20년 이하	24 (33.1)	18 (24.2)	9 (11.6)	7 (10.0)	0 (0)	3 (3.9)	1 (1.6)	1 (1.6)	10 (13.9)	0 (0)	73 (100)	
	21년 이상	26 (33.5)	15 (19.5)	11 (13.6)	11 (14.5)	0 (0)	1 (1.5)	3 (4.1)	1 (1.7)	9 (11.5)	0 (0)	77 (100)	
급 지	A	18 (36.8)	11 (23.6)	6 (12.5)	6 (12.2)	0 (0.3)	0 (0.7)	1 (1.7)	1 (2.1)	5 (10.1)	0 (0)	48 (100)	21.883
	B	32 (31.7)	24 (24)	14 (13.7)	11 (11.3)	0 (0.2)	3 (2.7)	2 (2)	2 (1.7)	13 (12.8)	0 (0)	100 (100)	
	C	21 (31.6)	12 (18.2)	12 (17.2)	9 (13.9)	1 (1.0)	2 (3.2)	2 (3)	1 (1.7)	7 (10.2)	0 (0)	67 (100)	
	D	9 (28.3)	6 (18.7)	6 (16.7)	5 (14.6)	0 (0)	1 (1.5)	1 (2.5)	1 (1.5)	5 (16.2)	0 (0)	33 (100)	
직 위	부장 교사 이상	23 (35.7)	14 (22.4)	8 (13)	7 (10.9)	0 (0)	2 (2.9)	2 (3.1)	1 (0.8)	7 (11.2)	0 (0)	64 (100)	3.920
	교사	57 (31)	39 (21.4)	28 (15.4)	24 (13.2)	1 (0.5)	4 (2.1)	4 (2.0)	4 (2.1)	23 (12.3)	0 (0)	184 (100)	
학 력	대졸 이하	65 (31.6)	44 (21.2)	32 (15.7)	27 (13.0)	1 (0.5)	4 (2.1)	5 (2.4)	4 (1.8)	24 (11.6)	0 (0)	205 (100)	6.960
	대학 원졸	15 (34.9)	10 (23.6)	5 (10.5)	5 (10.9)	0 (0)	1 (3.1)	1 (1.6)	1 (1.6)	6 (14.0)	0 (0)	43 (100)	
전 체		80 (32.2)	54 (21.6)	37 (14.8)	31 (12.6)	1 (0.4)	6 (2.3)	6 (2.3)	4 (1.7)	30 (12.0)	0 (0)	248 (100)	

- \_\_\_\_\_① 수업시수 감축                      \_\_\_\_\_② 교육과정 개정  
 \_\_\_\_\_③ 사회교육시설 확보              \_\_\_\_\_④ 체험활동 프로그램  
 \_\_\_\_\_⑤ 교사연수 프로그램                \_\_\_\_\_⑥ 입시제도 개선  
 \_\_\_\_\_⑦ 자원봉사자 확보                 \_\_\_\_\_⑧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_\_\_\_\_⑨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한 대책 마련  
 \_\_\_\_\_⑩ 기타 (                      )

**마. 토요일휴업일 활용 방향**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 토요일휴업일 활용 방향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맞

<IV-14> 토요일휴업일 활용 방안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1(25.6)	12(27.9)	7(16.3)	13(30.2)	0(0)	43(100)	3.404
	여	32(15.6)	56(27.3)	42(20.5)	71(34.6)	4(2.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3(13.3)	34(34.7)	19(19.4)	30(30.6)	2(2.0)	98(100)	12.918
	11년 이상-20년 이하	18(24.7)	17(23.3)	18(24.7)	19(26.0)	1(1.4)	73(100)	
	21년 이상	12(15.6)	17(22.1)	12(15.6)	35(45.5)	1(1.3)	77(100)	
급지	A	7(14.6)	18(37.5)	6(12.5)	17(35.4)	0(0)	48(100)	19.097
	B	9(9.0)	30(30.0)	22(22.0)	38(38.0)	1(1.0)	100(100)	
	C	17(25.4)	14(20.9)	14(20.9)	20(29.9)	2(3.0)	67(100)	
	D	10(30.3)	6(18.2)	7(21.2)	9(27.3)	1(3.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4(21.9)	11(17.2)	15(23.4)	23(35.9)	1(1.6)	64(100)	5.018
	교사	29(15.8)	57(31.0)	34(18.5)	61(33.2)	3(1.6)	184(100)	
학력	대졸이하	34(16.6)	61(29.8)	42(20.5)	66(32.2)	2(1.0)	205(100)	7.018
	대학원졸	9(20.9)	7(16.3)	7(16.3)	18(41.9)	2(4.7)	43(100)	
전체		43(17.3)	68(27.4)	49(19.8)	84(33.9)	4(1.6)	248(100)	

- \_\_\_\_\_① 일요일처럼 휴일날로 운영한다.
- \_\_\_\_\_② 평소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실시하기 힘들었던 체험활동의 보충활동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_\_\_\_\_③ 다인수 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깊이 다루기 힘들었던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 \_\_\_\_\_④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가족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_\_\_\_\_⑤ 기타 (                    )

별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 사회 상황에서 가족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33.9%), ‘평소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실시하기 힘들었던 체험활동의 보충활동으로 활용되어야 한다’(27.4%), ‘다인수 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깊이 다루기 힘들었던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19.8%), ‘일요일처럼 휴일날로 운영한다’(17.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10년 이하의 교사는 체험활동의 활용, 11년 이상-20년 이하의 교사는 특기 및 소질 계발에 활용, 21년 이상의 교사는 가족애를 체험할 수 있는 것에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의 차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A급지의 경우 체험활동의 활용, B 와 C급지의 경우 가족애 체험, D급지의 경우 휴일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의 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이상 보다 체험활동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졸 이하 교사가 대학원졸 이하 교사에 비해 체험활동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시의 토요일휴업일 활용 방안은 가족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바.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장애가 될 교육체제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학교 교육체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IV-15> 학교 교육체제의 장애 요소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8(41.9)	6(14.0)	4(9.3)	13(30.2)	2(4.7)	43(100)	5.715
	여	99(48.3)	36(17.6)	8(3.9)	60(29.3)	2(1.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47(48.0)	13(13.3)	6(6.1)	31(31.6)	1(1.0)	98(100)	4.516
	11년 이상-20년 이하	37(50.7)	12(16.4)	2(2.7)	21(28.8)	1(1.4)	73(100)	
	21년 이상	33(42.9)	17(22.1)	4(5.2)	21(27.3)	2(2.6)	77(100)	
급지	A	27(56.3)	6(12.5)	1(2.1)	14(29.2)	0(0)	48(100)	13.583
	B	48(48.0)	17(17.0)	3(3.0)	31(31.0)	1(1.0)	100(100)	
	C	31(46.3)	13(19.4)	4(6.0)	18(26.9)	1(1.5)	67(100)	
	D	11(33.3)	6(18.2)	4(12.1)	10(30.3)	2(6.1)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26(40.6)	18(28.1)	3(4.7)	14(21.9)	3(4.7)	64(100)	13.897**
	교사	91(49.5)	24(13.0)	9(4.9)	59(32.1)	1(0.5)	184(100)	
학력	대졸이하	99(48.3)	31(15.1)	12(5.9)	60(29.3)	3(1.5)	205(100)	5.300
	대학원졸	18(41.9)	11(25.6)	0(0)	13(30.2)	1(2.3)	43(100)	
전체		117(47.2)	42(16.9)	12(4.8)	73(29.4)	4(1.6)	248(100)	

\*\* p<.01

- \_\_\_\_\_ ① 교과목 수와 교육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공부시키지 않고 휴업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 \_\_\_\_\_ ②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 \_\_\_\_\_ ③ 교사 및 그 밖의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 \_\_\_\_\_ ④ 주5일수업제 실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부족하다.
- \_\_\_\_\_ ⑤ 기타 ( )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수와 교육내용이 너무 많다’(47.2%),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부족하다’(29.4%),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16.9%), ‘인적 자원의 부족 현상으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급지가 좋을수록 교과목 수와 교육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 5일 수업이 부담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이상보다 가르쳐야 할 교과목 수와 교육내용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13.897$   $p < .01$ )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있어 장애가 되는 학교교육체제에 관해서는 가르쳐야 할 교과목 수와 교육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부장교사이상 보다는 일반교사가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사. 법정 수업시수 확보 방안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법정 수업시수 확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연간 교육일수와 총 수업시수를 축소해야 한다’(74.2%), ‘지역과 학교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15.7%), ‘현행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7.3%),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한 것을 인정하여 수업시수를 확보한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 급지, 직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법정 수업시수 확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국가수준에서 연간 교육일수와 총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IV-16> 법정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2(4.7)	6(14.0)	31(72.1)	4(9.3)	0(0)	43(100)	1.715
	여	4(2.0)	33(16.1)	153(74.6)	14(6.8)	1(0.5)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1.0)	11(11.2)	75(76.5)	11(11.2)	0(0)	98(100)	12.443
	11년 이상-20년 이하	2(2.7)	17(23.3)	51(69.9)	2(2.7)	1(1.4)	73(100)	
	21년 이상	3(3.9)	11(14.3)	58(75.3)	5(6.5)	0(0)	77(100)	
급지	A	1(2.1)	9(18.8)	38(79.2)	0(0)	0(0)	48(100)	16.784
	B	2(2.0)	18(18.0)	67(67.0)	13(13.0)	0(0)	100(100)	
	C	3(4.5)	7(10.4)	52(77.6)	4(6.0)	1(1.5)	67(100)	
	D	0(0)	5(15.2)	27(81.8)	1(3.0)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1.6)	11(17.2)	49(76.6)	3(4.7)	0(0)	64(100)	1.577
	교사	5(2.7)	28(15.2)	135(73.4)	15(8.2)	1(0.5)	184(100)	
학력	대졸이하	4(2.0)	34(16.6)	152(74.1)	14(6.8)	1(0.5)	205(100)	2.136
	대학원졸	2(4.7)	5(11.6)	32(74.4)	4(9.3)	0(0)	43(100)	
전체		6(2.4)	39(15.7)	184(74.2)	18(7.3)	1(0.4)	248(100)	

- \_\_\_\_\_ ① 현행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 \_\_\_\_\_ ② 지역과 학교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 \_\_\_\_\_ ③ 국가수준에서 연간 교육일수와 총 수업시수를 축소해야 한다.
- \_\_\_\_\_ ④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한 것을 인정하여 수업시수를 확보한다.
- \_\_\_\_\_ ⑤ 기타 (                      )

**아. 수업일수 재조정시 참여야 할 교육활동**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수업일수를 재조정할 때 참여야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정

<IV-17> 수업일수 재조정시 줄여야 할 교육활동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X <sup>2</sup>
성별	남	11(25.6)	6(14.0)	23(53.5)	3(7.0)	0(0)	43(100)	4.960
	여	29(14.1)	31(15.1)	112(54.6)	33(16.1)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9(19.4)	12(12.2)	54(55.1)	13(13.3)	0(0)	98(100)	4.555
	11년 이상-20년 이하	10(13.7)	9(12.3)	41(56.2)	13(17.8)	0(0)	73(100)	
	21년 이상	11(14.3)	16(20.8)	40(51.9)	10(13)	0(0)	77(100)	
급지	A	7(14.6)	6(12.5)	28(58.3)	7(14.6)	0(0)	48(100)	7.692
	B	12(12.0)	19(19.0)	54(54.0)	15(15.0)	0(0)	100(100)	
	C	14(20.9)	10(14.9)	32(47.8)	11(16.4)	0(0)	67(100)	
	D	7(21.2)	2(6.1)	21(63.6)	3(9.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4(6.3)	11(17.2)	39(60.9)	10(15.6)	0(0)	64(100)	6.260
	교사	36(19.6)	26(14.1)	96(52.2)	26(14.1)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32(15.6)	32(15.6)	109(53.2)	32(15.6)	0(0)	205(100)	1.897
	대학원졸	8(18.6)	5(11.6)	26(60.5)	4(9.3)	0(0)	43(100)	
전체		40(16.1)	37(14.9)	135(54.4)	36(14.5)	0(0)	248(100)	

- \_\_\_\_\_ ① 학교행사의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한다.
- \_\_\_\_\_ ② 교과에서 공통관련요소들을 뽑아서 통합교과를 운영한다.
- \_\_\_\_\_ ③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서 확보한다.
- \_\_\_\_\_ ④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교육시간을 토요일로 돌려 이를 활용한다.
- \_\_\_\_\_ ⑤ 기타 ( )

하여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서 확보한다'(54.4%), '학교행사의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한다'(16.1%), '교과에서 공통관련요소들을 뽑아서 통합교과를 운영한다'(14.9%),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교육시간을 토요일로 돌려 이를 활용한다'(1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교육시간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남교사는 학교행사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10년 이하의 교사는 학교행사의 축소, 11년 이상-20년 이하

의 교사는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축소, 21년 이상의 교사는 통합교과의 운영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 학력별, 직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수업일수를 재조정할 때 줄여야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 자.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적절한 연간 수업일수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간 수업일수를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80일 이상-190일 미만'(41.9%),

<IV-18> 적정한 연간 수업일수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5(34.9)	11(25.6)	10(23.3)	5(11.6)	2(4.7)	43(100)	9.534*
	여	46(22.4)	93(45.4)	52(25.4)	9(4.4)	5(2.4)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20(20.4)	44(44.9)	23(23.5)	6(6.1)	5(5.1)	98(100)	10.295
	11년 이상-20년 이하	21(28.8)	28(38.4)	21(28.8)	1(1.4)	2(2.7)	73(100)	
	21년 이상	20(26.0)	32(41.6)	18(23.4)	7(9.1)	0(0)	77(100)	
급지	A	10(20.8)	19(39.6)	15(31.3)	1(2.1)	3(6.3)	48(100)	11.674
	B	22(22.0)	42(42.0)	27(27.0)	8(8.0)	1(1.0)	100(100)	
	C	20(29.9)	29(43.3)	11(16.4)	4(6.0)	3(4.5)	67(100)	
	D	9(27.3)	14(42.4)	9(27.3)	1(3.0)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6(25.0)	22(34.4)	19(29.7)	6(9.4)	1(1.6)	64(100)	4.551
	교사	45(24.5)	82(44.6)	43(23.4)	8(4.3)	6(3.3)	184(100)	
학력	대졸이하	47(22.9)	93(45.4)	48(23.4)	10(4.9)	7(3.4)	205(100)	8.548
	대학원졸	14(32.6)	11(25.6)	14(32.6)	4(9.3)	0(0)	43(100)	
전체		61(24.6)	104(41.9)	62(25.0)	14(5.6)	7(2.8)	248(100)	

\*\* p<.05

- \_\_\_\_\_① 180일 미만
- \_\_\_\_\_② 180일 이상 - 190일 미만
- \_\_\_\_\_③ 190일 이상 - 200일 미만
- \_\_\_\_\_④ 200일 이상 - 210일 미만
- \_\_\_\_\_⑤ 연간수업일수 제시 외의 다른 방법 모색

‘190일 이상-200일 미만’(25.0%), ‘180일 미만’(24.6%), ‘200일 이상-210일 미만’(5.6%), ‘연간수업일수 제시 외의 다른 방법 모색’(2.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180일 이상 - 190일 미만을 선호하는 반면 남교사는 180일 미만이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9.534$   $p < .05$  )

경력별, 급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졸 이하 교사가 대학원졸 이상 교사(20.5%)에 비해 180일 이상 - 190일 미만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직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적절한 연간 수업일수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180일 이상 - 190일 미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았다.

#### 차. 「주 5일 수업제」실시에 있어 연간수업량의 수준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간 수업량의 수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당 수업 시수를 제시한다’(2%), ‘연간수업시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연간수업주수에 따른 수업시간을 제시한다’(0.4%), ‘수업시간도 연간 총 수

업시수로 제시한다'(0.4%) 순으로 나타났다.

<IV-19> 연간 수업량의 수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0(0)	1(50.0)	0(0)	1(50.0)	0(0)	2(100)	3.080
	여	0(0)	0(0)	1(20.0)	4(80.0)	0(0)	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0(0)	1(20.0)	1(20.0)	3(60.0)	0(0)	5(100)	1.120
	11년 이상-20년 이하	0(0)	0(0)	0(0)	2(100)	0(0)	2(100)	
	21년 이상	0(0)	0(0)	0(0)	0(0)	0(0)	0(0)	
급지	A	0(0)	0(0)	1(33.3)	2(66.7)	0(0)	3(100)	2.800
	B	0(0)	0(0)	0(0)	1(100)	0(0)	1(100)	
	C	0(0)	1(33.3)	0(0)	2(66.7)	0(0)	3(100)	
	D	0(0)	0(0)	0(0)	0(0)	0(0)	0(0)	
직위	부장교사이상	0(0)	0(0)	0(0)	1(100)	0(0)	1(100)	.467
	교사	0(0)	1(16.7)	1(16.7)	4(66.7)	0(0)	6(100)	
학력	대졸이하	0(0)	1(14.3)	1(14.3)	5(71.4)	0(0)	7(100)	
	대학원졸	0(0)	0(0)	0(0)	0(0)	0(0)	0(0)	
전체		0(0)	1(0.4)	1(0.4)	5(2.0)	0(0)	7(2.8)	

\_\_\_\_\_ ① 연간수업일수를 축소하여 운영한다

\_\_\_\_\_ ② 연간수업시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연간수업주수에 따른 수업시간을 제시한다.

\_\_\_\_\_ ③ 수업시간도 연간 총 수업시수로 제시한다.

\_\_\_\_\_ ④ 주당 수업 시수를 제시한다.

\_\_\_\_\_ ⑤ 기타 ( )

성별,경력별,급지별,직위별,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간 수업량의 수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주당 수업시수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카. 교육 내용 영역의 개선점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교육 내용 영역에는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교육내용 중에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제재는

<IV-20> 교육 내용 영역의 개선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3(7.0)	20(46.5)	16(37.2)	4(9.3)	0(0)	43(100)	4.567
	여	6(2.9)	111(54.1)	78(38.0)	8(3.9)	2(1.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2(2.0)	54(55.1)	37(37.8)	4(4.1)	1(1.0)	98(100)	6.834
	11년 이상-20년 이하	1(1.4)	38(52.1)	29(39.7)	4(5.5)	1(1.4)	73(100)	
	21년 이상	6(7.8)	39(50.6)	28(36.4)	4(5.2)	0(0)	77(100)	
급지	A	2(4.2)	24(50.0)	21(43.8)	0(0)	1(2.1)	48(100)	13.459
	B	3(3.0)	57(57.0)	31(31.0)	8(8.0)	1(1.0)	100(100)	
	C	1(1.5)	35(52.2)	29(43.3)	2(3.0)	0(0)	67(100)	
	D	3(9.1)	15(45.5)	13(39.4)	2(6.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4(6.3)	30(46.9)	25(39.1)	5(7.8)	0(0)	64(100)	4.513
	교사	5(2.7)	101(54.9)	69(37.5)	7(3.8)	2(1.1)	184(100)	
학력	대졸이하	6(2.9)	113(55.1)	76(37.1)	8(3.9)	2(1)	205(100)	5.566
	대학원졸	3(7.0)	18(41.9)	18(41.9)	4(9.3)	0(0)	43(100)	
전체		9(3.6)	131(52.8)	94(37.9)	12(4.8)	2(0.8)	248(100)	

- \_\_\_\_\_ ① 현 교육 내용 수준을 유지한다.
- \_\_\_\_\_ ② 현재의 교육내용 중에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제재는 따로 정선하여 토요일업일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_\_\_\_\_ ③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차시는 축소하고 평가횟수와 양을 줄여야 한다.
- \_\_\_\_\_ ④ 학교에서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
- \_\_\_\_\_ ⑤ 기타 ( )

따로 정선하여 토요일업일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52.8%),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차시는 축소하고 평가횟수와 양을 줄여야 한다’(37.9%), ‘학교에서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4.8%), ‘현 교

육 내용 수준을 유지한다'(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경력별,급지별,직위별,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교육 내용 영역에는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현재의 교육내용 중에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제재는 따로 정선하여 토요일·휴업일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 타. 교육 내적 조건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에 앞서 갖추어야 할 교육 내적인 조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

<IV-21> 교육 내적인 조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9(20.9)	19(44.2)	14(32.6)	1(2.3)	0(0)	43(100)	.398
	여	42(20.5)	99(48.3)	58(28.3)	6(2.9)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20(20.4)	40(40.8)	35(35.7)	3(3.1)	0(0)	98(100)	5.441
	11년 이상-20년 이하	14(19.2)	39(53.4)	17(23.3)	3(4.1)	0(0)	73(100)	
	21년 이상	17(22.1)	39(50.6)	20(26)	1(1.3)	0(0)	77(100)	
급지	A	6(12.5)	29(60.4)	13(27.1)	0(0)	0(0)	48(100)	18.392*
	B	27(27.0)	36(36.0)	33(33.0)	4(4.0)	0(0)	100(100)	
	C	14(20.9)	39(58.2)	13(19.4)	1(1.5)	0(0)	67(100)	
	D	4(12.1)	14(42.4)	13(39.4)	2(6.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3(20.3)	30(46.9)	20(31.3)	1(1.6)	0(0)	64(100)	.643
	교사	38(20.7)	88(47.8)	52(28.3)	6(3.3)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46(22.4)	94(45.9)	60(29.3)	5(2.4)	0(0)	205(100)	3.400
	대학원졸	5(11.6)	24(55.8)	12(27.9)	2(4.7)	0(0)	43(100)	
전체		51(20.6)	118(47.6)	72(29.0)	7(2.8)	0(0)	248(100)	

\*\* p<.05

- \_\_\_\_\_① 교사의 학습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_\_\_\_\_② 현재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교행사를 줄여야 한다.  
 \_\_\_\_\_③ 학교조직이 주5일수업제 지원체제여야 한다.  
 \_\_\_\_\_④ 학교에서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_\_\_\_\_⑤ 기타 (            )

로 ‘현재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교행사를 줄여야 한다’(47.6%), ‘교사의 학습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20.6%), ‘학교조직이 주5일수업제 지원체제여야 한다’(2.9%), ‘학교에서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2.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B급지 보다는 A, C D 급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불필요한 학교 행사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8.392$   $p < .05$ )

직위,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에 앞서 갖추어야 할 교육 내적인 조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현재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교행사를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A, C, D 급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B급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더 많았다.

#### 파. 대체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대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41.9%),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29.0%),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14.9%),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휴식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7.7%), 부모와 형제를 포함하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중시하도록 한다’(6.5%) 순으로 나타났다.

<IV-22> 대체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0(23.3)	18(41.9)	4(9.3)	10(23.3)	1(2.3)	43(100)	11.256*
	여	27(13.2)	54(26.3)	15(7.3)	94(45.9)	15(7.3)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2(12.2)	29(29.6)	9(9.2)	45(45.9)	3(3.1)	98(100)	10.949
	11년 이상-20년 이하	11(15.1)	23(31.5)	4(5.5)	32(43.8)	3(4.1)	73(100)	
	21년 이상	14(18.2)	20(26)	6(7.8)	27(35.1)	10(13)	77(100)	
급지	A	7(14.6)	15(31.3)	1(2.1)	20(41.7)	5(10.4)	48(100)	8.723
	B	14(14.0)	30(30.0)	8(8.0)	42(42.0)	6(6.0)	100(100)	
	C	11(16.4)	17(25.4)	9(13.4)	26(38.8)	4(6.0)	67(100)	
	D	5(15.2)	10(30.3)	1(3.0)	16(48.5)	1(3.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13(20.3)	19(29.7)	6(9.4)	21(32.8)	5(7.8)	64(100)	3.985
	교사	24(13)	53(28.8)	13(7.1)	83(45.1)	11(6.0)	184(100)	
학력	대졸이하	28(13.7)	58(28.3)	17(8.3)	88(42.9)	14(6.8)	205(100)	2.636
	대학원졸	9(20.9)	14(32.6)	2(4.7)	16(37.2)	2(4.7)	43(100)	
전체		37(14.9)	72(29)	19(7.7)	104(41.9)	16(6.5)	248(100)	

\*\* p<.05

- \_\_\_\_\_ 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 \_\_\_\_\_ ②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 \_\_\_\_\_ ③ 부모, 형제를 포함하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중시하도록 한다.
- \_\_\_\_\_ ④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 \_\_\_\_\_ ⑤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휴식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교사는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이 신장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1.256$  p<.05)

경력별, 급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이상보다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대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남교사 보다는 여교사가 더 응답률이 높았으며 남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이 신장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하. 토요일휴업일로 적당한 요일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휴업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IV-23> 휴업일로 적당한 요일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X <sup>2</sup>
성별	남	29(67.4)	9(20.9)	2(4.7)	3(7.0)	0(0)	43(100)	9.918*
	여	175(85.4)	24(11.7)	3(1.5)	3(1.5)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75(76.5)	18(18.4)	2(2.0)	3(3.1)	0(0)	98(100)	4.680
	11년 이상-20년 이하	63(86.3)	7(9.6)	2(2.7)	1(1.4)	0(0)	73(100)	
	21년 이상	66(85.7)	8(10.4)	1(1.3)	2(2.6)	0(0)	77(100)	
급지	A	41(85.4)	6(12.5)	1(2.1)	0(0)	0(0)	48(100)	9.322
	B	83(83.0)	15(15.0)	1(1.0)	1(1.0)	0(0)	100(100)	
	C	54(80.6)	8(11.9)	1(1.5)	4(6.0)	0(0)	67(100)	
	D	26(78.8)	4(12.1)	2(6.1)	1(3.0)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53(82.8)	8(12.5)	2(3.1)	1(1.6)	0(0)	64(100)	.833
	교사	151(82.1)	25(13.6)	3(1.6)	5(2.7)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169(82.4)	26(12.7)	4(2.0)	6(2.9)	0(0)	205(100)	1.633
	대학원졸	35(81.4)	7(16.3)	1(2.3)	0(0)	0(0)	43(100)	
전체		204(82.3)	33(13.3)	5(2.0)	6 (2.4)	0(0)	248(100)	

\* p<.05

- \_\_\_\_\_①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 \_\_\_\_\_②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_\_\_\_\_③ 월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 \_\_\_\_\_④ 수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 \_\_\_\_\_⑤ 기타 (                    )

전체적으로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한다’(82.3%),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13.3%), ‘수요일을 휴업일로 한다’(2.4%), ‘월요일을 휴업일로 한다’(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남교사의 경우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chi^2 = 9.918$   $p < .05$ )

경력별로는 11년 이상 - 20년 미만의 교사와 21년 이상의 교사가 1년 이상 - 10년 미만의 교사보다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급지가 좋을수록 토요일을 휴업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휴업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 3. 사회적 인프라에 관한 인식

#### 가. 현 시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정도

현 시점에서 「주 5일 수업제」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IV-24> 현 시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정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5(11.6)	14(32.6)	23(53.5)	1(2.3)	0(0)	43(100)	2.283
	여	13(6.3)	76(37.1)	105(51.2)	11(5.4)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6(6.1)	34(34.7)	55(56.1)	3(3.1)	0(0)	98(100)	8.778
	11년 이상-20년 이하	2(2.7)	31(42.5)	35(47.9)	5(6.8)	0(0)	73(100)	
	21년 이상	10(13.0)	25(32.5)	38(49.4)	4(5.2)	0(0)	77(100)	
급지	A	5(10.4)	17(35.4)	24(50.0)	2(4.2)	0(0)	48(100)	13.249
	B	8(8.0)	33(33.0)	54(54.0)	5(5.0)	0(0)	100(100)	
	C	3(4.5)	20(29.9)	41(61.2)	3(4.5)	0(0)	67(100)	
	D	2(6.1)	20(60.6)	9(27.3)	2(6.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6(9.4)	22(34.4)	32(50)	4(6.3)	0(0)	64(100)	1.018
	교사	12(6.5)	68(37.0)	96(52.2)	8(4.3)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13(6.3)	73(35.6)	108(52.7)	11(5.4)	0(0)	205(100)	2.461
	대학원졸	5(11.6)	17(39.5)	20(46.5)	1(2.3)	0(0)	43(100)	
전체		18(7.3)	90(36.3)	128(51.6)	12(4.8)	0(0)	248(100)	

- \_\_\_\_\_ ①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었다.  
 \_\_\_\_\_ ② 미흡하지만 실행할 만하다.  
 \_\_\_\_\_ ③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_\_\_\_\_ ④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_\_\_\_\_ ⑤ 기타 ( )

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51.6%), ‘미흡하지만 실행할 만하다’(36.3%),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었다’(7.3%),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A, B, C급지의 경우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D급지의 경우 미흡하지만 실행할 만하다는 응답률이 많아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현 시점에서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 나.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문제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문제’(37.1%), ‘시설문제’(31.5%), ‘인력문제’(21%), ‘운용문제’(9.3%) 순으로 나타났다.

<IV-25>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문제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4(9.3)	17(39.5)	12(27.9)	9(20.9)	1(2.3)	43(100)	2.800
	여	19(9.3)	61(29.8)	80(39)	43(21)	2(1.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0(10.2)	29(29.6)	42(42.9)	16(16.3)	1(1.0)	98(100)	8.307
	11년 이상-20년 이하	4(5.5)	25(34.2)	29(39.7)	14(19.2)	1(1.4)	73(100)	
	21년 이상	9(11.7)	24(31.2)	21(27.3)	22(28.6)	1(1.3)	77(100)	
급지	A	5(10.4)	13(27.1)	17(35.4)	13(27.1)	0(0)	48(100)	25.436*
	B	10(10.0)	29(29.0)	40(40.0)	20(20.0)	1(1.0)	100(100)	
	C	4(6.0)	32(47.8)	23(34.3)	8(11.9)	0(0)	67(100)	
	D	4(12.1)	4(12.1)	12(36.4)	11(33.3)	2(6.1)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8(12.5)	19(29.7)	20(31.3)	16(25)	1(1.6)	64(100)	2.606
	교사	15(8.2)	59(32.1)	72(39.1)	36(19.6)	2(1.1)	184(100)	
학력	대졸이하	17(8.3)	71(34.6)	74(36.1)	42(20.5)	1(0.5)	205(100)	10.577*
	대학원졸	6(14.0)	7(16.3)	18(41.9)	10(23.3)	2(4.7)	43(100)	
전체		23(9.3)	78(31.5)	92(37.1)	52(21)	3(1.2)	248(100)	

\* p<.05

- \_\_\_\_\_① 인력문제
- \_\_\_\_\_② 시설문제
- \_\_\_\_\_③ 프로그램문제
- \_\_\_\_\_④ 운용문제
- \_\_\_\_\_⑤ 기타 (            )

성별로는 남교사의 경우 시설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교사는 프로그램 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인식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1년 이상 - 10년 미만의 교사와 11년 이상 - 20년 미만의 교사가 프로그램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21년 이상의 교사는 시설 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인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A, B, D 급지의 경우 프로그램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C급지의 경우 시설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를 보였다. ( $\chi^2 = 25.436$   $p < .05$ )

직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이상 교사의 경우 운용문제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대졸이하의 교사는 시설문제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 = 10.577$   $p < .05$ )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프로그램문제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특히 A, B, D 급지의 교사와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가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 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 인적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먼저 충원되어야 할 인력 분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종 기능(예·체능, 컴퓨터 등)지도

<IV-26>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0(23.3)	9(20.9)	19(44.2)	4(9.3)	1(2.3)	43(100)	7.291
	여	21(10.2)	32(15.6)	126(61.5)	20(9.8)	6(2.9)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3(13.3)	20(20.4)	59(60.2)	4(4.1)	2(2)	98(100)	16.194*
	11년 이상-20년 이하	9(12.3)	12(16.4)	40(54.8)	7(9.6)	5(6.8)	73(100)	
	21년 이상	9(11.7)	9(11.7)	46(59.7)	13(16.9)	0(0)	77(100)	
급지	A	6(12.5)	3(6.3)	36(75.0)	3(6.3)	0(0)	48(100)	20.314
	B	18(18.0)	15(15.0)	50(50.0)	13(13.0)	4(4.0)	100(100)	
	C	4(6.0)	15(22.4)	42(62.7)	5(7.5)	1(1.5)	67(100)	
	D	3(9.1)	8(24.2)	17(51.5)	3(9.1)	2(6.1)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9(14.1)	8(12.5)	37(57.8)	8(12.5)	2(3.1)	64(100)	1.761
	교사	22(12.0)	33(17.9)	108(58.7)	16(8.7)	5(2.7)	184(100)	
학력	대졸이하	24(11.7)	31(15.1)	126(61.5)	20(9.8)	4(2.0)	205(100)	7.019
	대학원졸	7(16.3)	10(23.3)	19(44.2)	4(9.3)	3(7.0)	43(100)	
전체		31(12.5)	41(16.5)	145(58.5)	24(9.7)	7(2.8)	248(100)	

\* p<.05

- \_\_\_\_\_① 전문 상담 카운슬러
- \_\_\_\_\_② 복지관계 사회복지사
- \_\_\_\_\_③ 각종 기능(예·체능, 컴퓨터 등) 지도자
- \_\_\_\_\_④ 정신 문화(효·예절) 전수자
- \_\_\_\_\_⑤ 기타 ( )

자’(58.5%), ‘복지관계 사회복지사’(16.5%), ‘전문 상담 카운슬러’(12.5%), ‘정신 문화(효·예절) 전수자’(9.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급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1년 이상 - 10년 미만의 교사와 11년 이상 - 20년 미만의 교사의 경우 복지관계 사회복지사 충원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21년 이상의 교사는 정신 문화(효,예절)전수자 충원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6.194$   $p < .05$ )

직위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 인적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먼저 충원되어야 할 인력 분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각종 기능(예·체능, 컴퓨터 등)지도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21년 이상된 교사의 경우 정신 문화(효,예절)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라. 현 상태의 사회적 인프라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현 상태의 행·제정 측면과 시설측면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능력으로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IV-27> 현 상태의 사회적 인프라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5(34.9)	17(39.5)	11(25.6)	0(0)	0(0)	43(100)	4.085
	여	70(34.1)	98(47.8)	31(15.1)	6(2.9)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39(39.8)	40(40.8)	18(18.4)	1(1.0)	0(0)	98(100)	14.775*
	11년 이상-20년 이하	24(32.9)	30(41.1)	14(19.2)	5(6.8)	0(0)	73(100)	
	21년 이상	22(28.6)	45(58.4)	10(13)	0(0)	0(0)	77(100)	
급지	A	17(35.4)	19(39.6)	11(22.9)	1(2.1)	0(0)	48(100)	12.431
	B	44(44.0)	39(39.0)	14(14.0)	3(3.0)	0(0)	100(100)	
	C	15(22.4)	40(59.7)	11(16.4)	1(1.5)	0(0)	67(100)	
	D	9(27.3)	17(51.5)	6(18.2)	1(3.0)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22(34.4)	28(43.8)	13(20.3)	1(1.6)	0(0)	64(100)	.971
	교사	63(34.2)	87(47.3)	29(15.8)	5(2.7)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71(34.6)	95(46.3)	34(16.6)	5(2.4)	0(0)	205(100)	.132
	대학원졸	14(32.6)	20(46.5)	8(18.6)	1(2.3)	0(0)	43(100)	
전체		85(34.3)	115(46.4)	42(16.9)	6(2.4)	0(0)	248(100)	

\*  $p < .05$

- \_\_\_\_\_①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_\_\_\_\_②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_\_\_\_\_③ 그저 그렇다.  
 \_\_\_\_\_④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_\_\_\_\_⑤ 기타 (            )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46.4%),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34.3%), ‘그저 그렇다’(16.9%),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별로는 21년 이상의 교사가 1년 이상 - 10년 미만의 교사, 11년 이상 - 20년 미만의 교사보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것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4.775$   $p < .05$ )

급지별, 직위별,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현 상태의 행·제정 측면과 시설측면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능력으로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으며, 특히 21년 이상된 교사가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 마.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가 활용면에 따른 사회 분위기와 시설’(35.1%), ‘프로그램의 다양성’(24.2%),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 공유 부족’(16.9%), ‘경제적 지원’(13.7%), ‘자원 봉사자와 전문가 확보’(10.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사회 분위기와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9.791$   $p < .05$ )

<IV-28>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프라 문제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13(30.2)	13(30.2)	11(25.6)	2(4.7)	4(9.3)	43(100)	9.791*
	여	74(36.1)	47(22.9)	23(11.2)	23(11.2)	38(18.5)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33(33.7)	18(18.4)	15(15.3)	12(12.2)	20(20.4)	98(100)	12.454
	11년 이상-20년 이하	31(42.5)	15(20.5)	12(16.4)	4(5.5)	11(15.1)	73(100)	
	21년 이상	23(29.9)	27(35.1)	7(9.1)	9(11.7)	11(14.3)	77(100)	
급지	A	15(31.3)	13(27.1)	4(8.3)	10(20.8)	6(12.5)	48(100)	16.494
	B	39(39.0)	24(24.0)	11(11.0)	6(6.0)	20(20.0)	100(100)	
	C	22(32.8)	16(23.9)	12(17.9)	4(6.0)	13(19.4)	67(100)	
	D	11(33.3)	7(21.2)	7(21.2)	5(15.2)	3(9.1)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22(34.4)	23(35.9)	9(14.1)	5(7.8)	5(7.8)	64(100)	9.617*
	교사	65(35.3)	37(20.1)	25(13.6)	20(10.9)	37(20.1)	184(100)	
학력	대졸이하	72(35.1)	49(23.9)	27(13.2)	20(9.8)	37(18.0)	205(100)	1.281
	대학원졸	15(34.9)	11(25.6)	7(16.3)	5(11.6)	5(11.6)	43(100)	
전체		87(35.1)	60(24.2)	34(13.7)	25(10.1)	42(16.9)	248(100)	

\* p<.05

- \_\_\_\_\_ ① 여가 활용면에 따른 사회 분위기와 시설
- \_\_\_\_\_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 \_\_\_\_\_ ③ 경제적 지원
- \_\_\_\_\_ ④ 자원 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 \_\_\_\_\_ ⑤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 공유 부족

경력별, 급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위별로는 부장교상이상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교사는 사회 분위기와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 = 9.617$  p<.05)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여가 활용면에 따른 사회 분위기와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교

사가 많았는데, 특히 여교사와 일반교사가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 바. 학교프로그램 운영시 교사의 근무형태

앞으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시설, 인적 측면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시행하면 좋을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IV-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

<IV-29> 휴업일 교사의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chi^2$
성별	남	2(4.7)	12(27.9)	25(58.1)	4(9.3)	0(0)	43(100)	5.483
	여	1(0.5)	52(25.4)	134(65.4)	18(8.8)	0(0)	205(100)	
경력	1년 이상-10년 이하	1(1.0)	22(22.4)	68(69.4)	7(7.1)	0(0)	98(100)	6.509
	11년 이상-20년 이하	1(1.4)	15(20.5)	48(65.8)	9(12.3)	0(0)	73(100)	
	21년 이상	1(1.3)	27(35.1)	43(55.8)	6(7.8)	0(0)	77(100)	
급지	A	1(2.1)	16(33.3)	30(62.5)	1(2.1)	0(0)	48(100)	18.743*
	B	2(2.0)	23(23.0)	64(64.0)	11(11.0)	0(0)	100(100)	
	C	0(0)	10(14.9)	51(76.1)	6(9.0)	0(0)	67(100)	
	D	0(0)	15(45.5)	14(42.4)	4(12.1)	0(0)	33(100)	
직위	부장교사이상	0(0)	22(34.4)	34(53.1)	8(12.5)	0(0)	64(100)	6.403
	교사	3(1.6)	42(22.8)	125(67.9)	14(7.6)	0(0)	184(100)	
학력	대졸이하	1(0.5)	49(23.9)	139(67.8)	16(7.8)	0(0)	205(100)	10.783*
	대학원졸	2(4.7)	15(34.9)	20(46.5)	6(14.0)	0(0)	43(100)	
전체		3(1.2)	64(25.8)	159(64.1)	22(8.9)	0(0)	248(100)	

\* p<.05

- \_\_\_\_\_① 전 교사가 출근하여 근무한다.  
 \_\_\_\_\_②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_\_\_\_\_③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한다.  
 \_\_\_\_\_④ 기타 ( )

의 인사를 활용한다’(64.1%),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25.8%), ‘기타’(8.9%), ‘전 교사가 출근하여 근무한다’(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경력별, 직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급지별로는 A, B, C급지가 D급지에 비해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8.743$   $p < .05$ )

학력별로는 대졸이하의 교사가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에 비해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0.783$   $p < .05$ )

이상과 같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시설, 인적 측면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시행하면 좋을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특히 A, B, D 급지와 대졸이하의 교사가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해 교원의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초등학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초등학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초등학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주 5일 수업제」개념과 배경, 「주 5일 수업제」의 외국사례, 「주 5일 수업제」연구학교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탐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보면, 먼저 측정도구는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집 대상은 교사 248명으로 삼았다. 회수된 질문지는 연구문제에 따라 SPSS win 12.0 프로그램

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배경변인별 차이의 유의도는  $\chi^2$  검증에 의해 자료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주 5일 수업제」의 효과 및 문제점 인식

「주 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다 이상(95.6%)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서 남교사 보다 여교사가 있어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별에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의 이해정도가 높았고,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이상이 일반교사들보다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관한 의견의 분석 결과는 전체적(97%)으로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문화행사참여, 견학, 여행이 가능하다(58.9%)’와 ‘가족과의 활동시간이 많아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30.7%)’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 아주 적은 수(2.8%)의 교사이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교육 체험 부족현상’과 ‘사회적 인프라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전면실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 5일 수업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의 분석 결과는 많은 교사(79.0%)들이 효과가 비교적 있거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에서 오는 집중력의 증가와 주 5일간의 집약된 시간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단위 수업시간에 해야 할 학습량이 많아지고 휴일 기분이 다음 날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적거(8.5%)나 없다(0.4%)고 인식하는 교사도 있었다.

「주 5일 수업제」로 해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에 관한 의견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66.1%),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 개발(19.4%), 교과 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체험(5.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서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이상(57.8%)보다 일반교사(69.0%)가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7차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하거나 「주 5일 수업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배경변인별로는 대졸이하의 교사(23.9%)보다는 대학원졸 이상(41.9%)의 교사가 「주 5일 수업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 **둘째,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현행 교육 과정의 「주 5일 수업제」적합성에 관한 의견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54.0%)와 조금 적합하지 않다(31.5%), 매우 적합하지 않다(9.7%)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별로는 경력별로 경력이 낮을수록 현행 7차 교육 과정이 「주 5일 수업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교육 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을 「주 5일 수업제」에 맞게 축소하거(69.4%)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24.6%)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배경변인별로는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가 대학졸 이하 교사에

비해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우선 고려 사항에 관한 의견의 분석결과는, 각 과목의 교육내용을 줄이(9.4%)거나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으로 통합교과를 운영(6.9%), 휴업일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짚을 개선(4.8%), 교과목의 수를 줄여야 한다(3.6%)는 반응을 나타냈다.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에 관한 의견의 분석 결과는, 수업시수감축(32.2%), 교육과정개정(21.6%), 사회교육시설확보(14.8%), 체험활동프로그램(12.6%),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한 대책을 마련(12.0%)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토요휴업일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의 분석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 사회 상황에서 가족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33.9%), 평소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실시하기 힘들었던 체험활동의 기회로 제공(27.4%)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주 5일 수업제」실시에 있어 해결해야 될 학교 교육체제에 관한 의견의 분석 결과는,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수와 교육내용이 너무 많다(47.2%), 「주 5일 수업제」실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29.4%),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16.9%)되어야 하며, 배경변인별로는 직위별로 일반교사가 부장교사이상보다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수와 교육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법정 수업 시수 확보에 관한 의견의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국가 수준에서 연간 교육일수와 총 수업시수를 감축(74.2%)을 해야 하며 적절한 연간 수업일수로 180일 이상- 190일 미만이 적당(41.9%), 190일 이상- 200일 미만이 적당(25.0%), 180일 미만이 적당(24.6%)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일부 교사는 지역과 학교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15.7%)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시수 재조정 문

제는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반응(54.4%)을 나타냈고, 학교행사를 축소(16.1%)하거나 교과 내용을 정선하여 통합교과를 운영(14.9%)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교육 내용 영역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현재의 교육내용 중에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제재는 따로 정선하여 토요일 휴업일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52.8%)과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차시는 축소(37.9%)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앞서 갖추어야 할 교육 내적 조건에 관한 분석결과는, 많은 수의 교사가 현재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교행사를 줄여야 하며(47.6%), 교사의 학습부담이 늘어나지 않아(20.6%)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주 5일 수업제」 따른 대체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많은 수의 교사가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방향(41.9%)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 신장(29.0%)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14.9%)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서 여교사가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교사는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이 신장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휴업일로 적당한 요일에 관한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해야 한다는 반응(82.3%)과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13.3%)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 셋째,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사회가 구축해야 할 인프라 인식

현 시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정도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소부족

(51.6%), 미흡하나 실행 가능, 어느 정도 갖춰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수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문제(37.1%), 시설문제(31.5%), 인력문제(21.0%), 운용문제(9.3%) 순으로 나왔으며, 배경변인별로는 학력별에서 대학원졸 이상 교사는 운용문제에 대졸이하의 교사는 시설문제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충원되어야 할 인력분야에 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각종 기능지도자(53.9%), 복지관계 사회복지사(16.5%), 전문 상담 카운슬러(12.5%), 정신문화 전수자(9.7%) 순으로 나타났다.

현 상태의 행·제정측면과 시설측면의 사회인프라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줌(46.4%), 많은 도움을 줌(34.3%), 그저 그렇다(16.9%)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여가 활용면에 따른 사회분위기와 시설(35.1%),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 공유가 부족, 경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사회 분위기와 시설이 문제가 된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직위별에서 부장교사이상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교사는 사회분위기와 시설이 문제가 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시설 및 인적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시행하면 좋을지에 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64.1%),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25.8%), 기타(8.9%)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급지별에서 A, B, C급지가 D급지에 비해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에 더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며, 학력별에서는 대졸이하의 교사가 대학원졸 이상의 교사에 비해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는 것에 더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2회 「주 5일 수업제」 시행과 선도학교의 많은 연구물로 인해 「주 5일 수업제」 도입취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문화행사참여, 견학,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가족과의 활동시간이 많아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 수업제」가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는 충분한 휴식에서 오는 집중력의 증가와 주5일간의 집약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수의 교사이지만 아직까지 주5일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교육 체험 부족현상을 우려하는 반응과 사회적 인프라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면 실시를 늦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주도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으며 국가주도의 7차교육과정 수정이나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주 5일 수업제」를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주 6일 수업 연간 수업일수 220일에 맞춰진 것이므로 「주 5일 수업제」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수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없이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면 교사나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현 교육과정체제에서의 보완 방안은 현재의 연간수업일수의 감축이 국가수준에서 필요하며(180일이상-190일미만) 법정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교행사를 과감하게 줄이고 각종 경시대회, 현장학습, 과학행사, 고적답사 등도 교과관련으로 연계하여 수업시수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목의 수를 줄이거나 교육내용의 양

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편성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 교육과정 체제에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이나 주제중심활동으로 교육내용을 정선하여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 5일 수업제」에 맞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인프라가 「주 5일 수업제」를 완전 시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학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 과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대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셋째, 현재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도가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설, 프로그램, 운용, 인력 순으로 나왔으며 국가수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여가활용 등 사회분위기와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공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은 교육비의 확충과 더불어 교육과정 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활동 시설의 확충과 각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도조언 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의 확보에도 전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 5일 수업제」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서부터 지식의 문제,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의 문제 등에 이르는 교육 전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교육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 5일 수업제」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내지 사전 준비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참된 지식과 능동적 생활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Ⅲ).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 (1995). 초등학교 교육 과정, 교육부 교시 제 1995-75호. 서울 : 대한 교과서.
- 교육부 (2001). 「학교 주 5일 수업제 안내」, 서울: 대한교과서.
- 권석광 (2002). 학교 주 5일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호 외 7인 (2002). 주 5일 수업제 운영 관련 지역수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 김용만 (2002). 일본의 새 교육과정과 주 5일제. 한국교육연구원.
- 김현석 (2003).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학생의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마산교동초등학교 (2002). '주 5일 수업제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교육부 연구학교 보고자료.
- 부산대교초등학교 (2005). 토요일휴업일 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주 5일 수업」 운영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보고서.
- 부산안락초등학교 (2000). 주 5일제 수업 운영을 통한 자기학습력 신장. 부산광역시 지정 연구학교 보고서.
- 사창초등학교 (2001). 주 5일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 서울고은초등학교 (2001). 토요일자유등교일 모형. 서울특별시지정 연구학교 보고서.

- 서울신기초등학교 (2002). 월 1회 토요일휴업일 모형. 서울특별시지정 연구학교 보고서.
- 서울창립초등학교 (2002). 토요일종합학습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주 5일 수업 선도학교 운영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한양초등학교 (2002). 월 2회 토요일휴업일 운영 모형. 서울특별시지정 연구학교보고서.
- 손웅 (2001). 주 5일제 수업. 서울교육,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 유한구 외 6인 (1999).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구조 개선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 이도인 (1994). 학교 5일제 교육. 대구: 학사원.
- 이도인 (1996). 학교 5일제 연구. 대구: 학사원.
- 이도인 (2000). 주 5일제 학교경영. 대구: 학사원.
- 이윤미 외 4인 (2001). 학교 주 5일제 운영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1997). 자율성 함양을 위한 주 5일제 수업. 주5일제수업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장이권 (2000). 학교 주 5일제 경영도입의 실천적 과제.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 장이권/홍미리 역 (2001). 학교경영론- 학교 주 5일제 경영 사례. 서울: 원미사.
- 정광희 (2000). 교육개혁으로서의 학교 주 5일제. 한국교육신문. 2000.12.25
- 정광희 외 4인 (2000).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 연구: 학교 주 5일제 도입과 실행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자 (2001). 학교 주 5일제 운영에 관한 교원의 의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겨레신문. 2000년 10월24일.
- 해운초등학교 (1997). 주 5일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  
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 홍광식 외 4인 (2002). 학교 주 5일제에 관한 아동과 교원의 의식 분석.  
초등교육연구 제 15집 제 1호.
- 유한구 (1999).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체제 구조개선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 김재복 외 2인 (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 경기도교육청 (2003). 주 5일 수업제 시행대비 업무추진계획. 수원: 경기  
도교육청.

<부록> 「주5일 수업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과 중에 잠시나마 번거로움을 끼쳐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5일 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고견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각 문항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며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년 9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우 태 올림

♠ 다음은 통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이오니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교육경력	① 10년 이하	② 11년 이상-20년 이하	③ 21년 이상	
학교급지	① A	② B	③ C	④ D
직위	① 교장·교감	② 부장교사	③ 교사	
학력	① 대학졸업	② 대학원졸업		

**1. 「주 5일 수업」의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주5일 수업제」의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_\_\_\_\_ 1) 정확히 알고 있다.
- \_\_\_\_\_ 2) 대충은 알고 있다.
- \_\_\_\_\_ 3)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
- \_\_\_\_\_ 4)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2.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_\_\_\_\_ 1) 적극 찬성한다.
- \_\_\_\_\_ 2) 대체로 찬성한다.
- \_\_\_\_\_ 3) 대체로 반대한다.
- \_\_\_\_\_ 4) 적극 반대한다.
- \_\_\_\_\_ 5) 잘 모르겠다.

3. 위(2)의 문항에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문항에서 1)과2)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 \_\_\_\_\_ 1) 학습 능률과 학습 의욕이 높아진다.
- \_\_\_\_\_ 2)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길러진다.
- \_\_\_\_\_ 3) 문화행사, 참여, 견학, 여행이 가능하다.
- \_\_\_\_\_ 4) 소질계발이나 특기활동이 용이하다.
- \_\_\_\_\_ 5) 가족과의 활동시간이 많아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4. 위(2)의 문항에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문항에서 3)과4)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 \_\_\_\_\_ 1)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 \_\_\_\_\_ 2) 사회적 인프라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 \_\_\_\_\_ 3)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교육 체험 부족현상
- \_\_\_\_\_ 4) 학원 학습으로 인한 학습비 부담 가중
- \_\_\_\_\_ 5)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5. 「주5일 수업제」가 학습 효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_\_\_\_\_ 1) 효과가 매우 크다.
- \_\_\_\_\_ 2) 효과가 비교적 있다.
- \_\_\_\_\_ 3) 종전과 같다.
- \_\_\_\_\_ 4) 효과가 적다.
- \_\_\_\_\_ 5) 효과가 전혀 없다.

6. 위(5)의 문항에서 학습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번 문항에서 1)과2)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 \_\_\_\_\_ 1) 주2일의 휴식에 대한 기대
- \_\_\_\_\_ 2) 교사들의 학습계획과 자료 준비 시간의 확보
- \_\_\_\_\_ 3) 주5일간의 집약된 시간의 활용
- \_\_\_\_\_ 4) 충분한 휴식에서 오는 집중력의 증가

7. 위(5)의 설문에서 학습 효과가 적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번 문항에서 4)와5)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 \_\_\_\_\_ 1) 수업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_\_\_\_\_ 2) 단위 수업시간에 해야 할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 \_\_\_\_\_ 3) 휴일 기분이 다음 날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 \_\_\_\_\_ 4) 생활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8.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 중 「주5일 수업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 개발
- \_\_\_\_\_ 2) 교사 연구 시간 확대 및 업무 경감
- \_\_\_\_\_ 3)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
- \_\_\_\_\_ 4) 교과 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체험
- \_\_\_\_\_ 5)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9. 「주5일 수업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학교 행사 축소를 통한 수업일수의 확보
- \_\_\_\_\_ 2) 7차 교육과정의 축소 운영
- \_\_\_\_\_ 3) 주5일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 \_\_\_\_\_ 4)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가정적 여건 조성
- \_\_\_\_\_ 5)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 II. 「주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현행 교육 과정은 「주5일 수업제」운영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그렇다.
- \_\_\_\_\_ 2) 조금 그렇다.
- \_\_\_\_\_ 3) 그렇지 않다.
- \_\_\_\_\_ 4) 매우 그렇지 않다.

11. 위(1)의 설문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면 교육과정 운영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현행의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
- \_\_\_\_\_ 2) 7차 교육과정을 주5일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
- \_\_\_\_\_ 3)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 \_\_\_\_\_ 4) 단위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 \_\_\_\_\_ 5) 기타 ( )

12. 「주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번 문항에서 3)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 \_\_\_\_\_ 1) 교과목의 수를 줄인다.
- \_\_\_\_\_ 2) 각 과목의 교육 내용을 줄인다.
- \_\_\_\_\_ 3) 휴업일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한다.
- \_\_\_\_\_ 4) 주제중심이나 활동중심의 통합교과를 운영한다.
- \_\_\_\_\_ 5) 기타 ( )

13.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대답해 주세요. ( , , )

- 1) 수업시수 감축
- 2) 교육과정 개정
- 3) 사회교육시설 확보
- 4) 체험활동 프로그램
- 5) 교사연수 프로그램
- 6) 입시제도 개선
- 7) 자원봉사자 확보
- 8)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 9)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한 대책 마련
- 10) 기타( )

14. 「주5일 수업제」에 있어 토요일휴업일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일요일처럼 휴일날로 운영한다.
- \_\_\_\_\_ 2) 평소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실시하기 힘들었던 체험활동의 보충 활동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_\_\_\_\_ 3) 다인수 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깊이 다루기 힘들었던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 \_\_\_\_\_ 4)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 사회 상황에서 가족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_\_\_\_\_ 5) 기타( )

15.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될 학교 교육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교과목 수와 교육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공부시키지 않고 휴업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 \_\_\_\_\_ 2)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 \_\_\_\_\_ 3) 교사 및 그 밖의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 \_\_\_\_\_ 4)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부족하다.
- \_\_\_\_\_ 5) 기타 ( )

16. 「주5일 수업제」에 있어 법정 수업시수 확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_\_\_ 1) 현행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 \_\_\_\_\_ 2) 지역과 학교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 \_\_\_\_\_ 3) 국가수준에서 연간 교육일수와 총 수업시수를 축소해야 한다.
- \_\_\_\_\_ 4)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한 것을 인정하여 수업시수를 확보한다.
- \_\_\_\_\_ 5) 기타 ( )

17. 「주5일 수업제」실시에 있어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일수를 재조정할 때 어느 시간을 줄이겠습니까?

- \_\_\_\_\_ 1) 학교행사의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한다.
- \_\_\_\_\_ 2) 교과에서 공통관련요소들을 뽑아서 통합교과를 운영한다.
- \_\_\_\_\_ 3) 교육과정을 전면 재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서 확보한다.
- \_\_\_\_\_ 4)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교육시간을 토요일로 돌려 이를 활용한다.
- \_\_\_\_\_ 5) 기타 ( )

18. 「주5일 수업제」전면 실시에 있어 연간 수업일수를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180일 이하

- \_\_\_\_\_ 2) 181-190일 이하
- \_\_\_\_\_ 3) 191-200일 이하
- \_\_\_\_\_ 4) 201-210일 이하
- \_\_\_\_\_ 5) 연간수업일수 제시 외의 다른 방법 모색

19.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연간 수업량의 수준은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번 문항에서 5)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 \_\_\_\_\_ 1) 주당 수업 시수를 제시한다.
- \_\_\_\_\_ 2) 수업시간도 학기당 총 수업시수로 제시한다.
- \_\_\_\_\_ 3) 수업시간도 연간 총 수업시수로 제시한다.
- \_\_\_\_\_ 4) 연간수업시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연간수업주수에 따른 수업시간을 제시한다.
- \_\_\_\_\_ 5) 기타 ( )

20.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교육 내용 영역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현 교육 내용 수준을 유지한다.
- \_\_\_\_\_ 2) 현재의 교육내용 중에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제재는 따로 정선하여 토요일수업일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_\_\_\_\_ 3)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차시는 축소한다. 학원수업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평가횟수와 양을 줄여야 한다.
- \_\_\_\_\_ 4) 학교에서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 \_\_\_\_\_ 5) 기타( )

21.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갖추어야 할 교육 내적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_\_ 1) 교사의 학습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 \_\_\_\_\_ 2) 현재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교행사를 줄여야 한다.
- \_\_\_\_\_ 3) 학교조직이 주 5일 수업제 지원체제여야 한다.

- \_\_\_\_\_ 4) 학교에서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_\_\_\_\_ 5) 기타( )

22.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있어 대체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_\_\_\_\_ 2)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  
 \_\_\_\_\_ 3) 부모, 형제를 포함하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중시하도록 한다.  
 \_\_\_\_\_ 4) 사회문화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_\_\_\_\_ 5)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휴식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23. 현행 「주5일 수업제」는 토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5일 근무제에서 휴업일을 토요일로 정한 교육외적인 부분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휴업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일은 무엇입니까?

- \_\_\_\_\_ 1) 현행처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_\_\_\_\_ 2)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_\_\_\_\_ 3) 월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_\_\_\_\_ 4) 수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_\_\_\_\_ 5) 기타 ( )

### Ⅲ. 「주5일 수업제」 실시 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인프라의 개념

「사회적 인프라」라는 용어는 주5일 수업제를 위한 제반 여건으로 여기에는 인적 자원, 물적·재정적 자원, 시설 차원, 행정·제도적 차원, 이념적 차원까지 통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 현 시점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었다.
- \_\_\_\_\_ 2) 미흡하지만 실행할 만하다.
- \_\_\_\_\_ 3)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_\_\_\_\_ 4)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_\_\_\_\_ 5) 기타( )

25. 우리 지역의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인력문제
- \_\_\_\_\_ 2) 시설문제
- \_\_\_\_\_ 3) 프로그램문제
- \_\_\_\_\_ 4) 운용문제
- \_\_\_\_\_ 5) 기타( )

26.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 인적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먼저 충원되어야 할 인력 분야는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전문 상담 카운슬러
- \_\_\_\_\_ 2) 복지관계 사회복지사
- \_\_\_\_\_ 3) 각종 기능(예·체능, 컴퓨터 등)지도자
- \_\_\_\_\_ 4) 정신 문화(효, 예절) 전수자
- \_\_\_\_\_ 5) 기타( )

27. 현 상태의 행·재정 측면과 시설측면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능력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_\_\_\_\_ 2)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_\_\_\_\_ 3) 그저 그렇다.
- \_\_\_\_\_ 4)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 \_\_\_\_\_ 5) 기타( )

28. 우리나라의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여가 활용면에 따른 사회 분위기와 시설
- \_\_\_\_\_ 2) 프로그램의 다양성
- \_\_\_\_\_ 3) 경제적 지원
- \_\_\_\_\_ 4) 자원 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 \_\_\_\_\_ 5)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 공유 부족

29.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 되었다고 하였을 때 시설, 인적 측면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시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_\_\_\_\_ 1) 전 교사가 출근하여 근무한다.
- \_\_\_\_\_ 2)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_\_\_\_\_ 3) 관리자만 나오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한다.
- \_\_\_\_\_ 4) 기타( )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